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05 1982년 12월 14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December 14, 1982

DEC 1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타민족과 결혼많다

LA경우 30% 차지

(LA지사)LA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한국인(남녀)의 약30%가 타민족과 결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수가 재혼케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UCLA사회학교수 해리·기타노박사가 LA카운티당국의 협조로 2년마다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타민족과 혼인하는 한국인은 75년에 26%, 77년에 34%, 79년에 28%로 되어있어 평균 30%안팎을 돌고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통계는 교포들이 한국에 나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LA교포의 30%가 타민족과 결혼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LA에서 결혼신고를 하는 한국인들의 30%가 남자가 타민족이거나 여자가 타민족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기타노박사의 통계에서 관심을 끄는것은 교포남성보다 여성들이 더많이 타민족과 결혼하는 경향이다. LA지역의 한국인여성들은 한국인남성에 비해 75년에는 3배, 77년에는 4배, 79년에는 5배나 타민족배우자를 선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한국여성들은 미국생활에 쉽게 적응하는데다 전통적인 한국의 남녀관계에 불만을 느끼고있기 때문이며 ▲LA에는 한국인여성수가 남성보다 많고 ▲남성들은 한국에 나가서 배우자를 데려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기타노교수의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하와이교포2세의 90%가 외국인과 결혼하는데 비해 LA교포중 최근 이민온 사람들은 99%가 교포끼리 혼인하고 있다.

타민족배우자를 선택하는 교포들은 일반적으로 30세이상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다. 이들중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들은 남자가 40%, 여자가 20%에 이른다. 타민족배우자들을 구분해 보면 일본계와 중국계가 30%, 나머지 70%는 미국인(남미계, 흑인, 백인계 포함)으로 되어있다.

폴랜드 계엄령 철폐

군부통치 끝내고 곧 정권이양

(와르샤와) 폴랜드의 계엄령이 금년안으로 철폐된다.

노조 솔리대리티문제로 1년전 계엄령을 선포한 야루제스키 대장은 기념식에서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면서 계엄령 철폐를 선언하고, "아직 해결못한 일은 많으나 이같은 특수상황을 계속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루제스키 대장은 "무정부상태가 폴랜드에서 다시 일어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폴랜드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위기군사위원회는 신속히 민간정부로 정권이양을 단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재판없이 구금돼 있는 300의 노조지도자들의 석방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본보에 게재된 기사 또는 광고도안의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투옥인사 석방 요구
바웬싸, 군정에 서한

(바르샤바) 최근 석방된 폴랜드 노조의 지도자 렉·바웬사는 11일 군정지도자 보이체크·야루젤스키장군에 보낸 서한에서 투옥인사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바웬사는 이날 계엄령하에 구속된 솔리대리티 자유노조원들에 대한 사면과 해고당한 노조운동가들의 복직및 솔리대리티의 복권을 촉구했다.

바웬사는 자신이 이같은 서한을 보내는 것은 계엄령을 철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때를 같이 한 것으로 야루젤스키장군은 계엄령선포 1주기인 12일밤 특별 TV연설을 했다.

지난 11월13일 11개월의 감금생활 끝에 석방된 바웬씨는 이날 미국의 ABC방송기자에게 PAP 폴랜드 관영통신등이 보도한 자신의 편지내용이 가짜이며 ABC의 서한내용만이 진짜라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크라이슬러 파업끝내
노조 20% 인상안 합의

크라이슬러의 노조협상이 5주만에 타결, 13일부터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노조대표 봅·화이트씨는 경영진측의 20% 인상안을 노조원들의 투표로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노조원들은 12일하오 윈저에서 가진 투표에서 90%이상이 경영자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화이트 노조위원장은 2년간 계약시도는 실패했다고 사과했다.

오는 캐나다크라이슬러 종업원들은 시간당 $1.15의 임금인상과 복지혜택으로 $1.79의 인상효과를 가져 노조원들의 시간당 $10.22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크라이슬러 노동자들은 GM이나 포드의 노조원들보다는 평균임금 시간당 $2씩 뒤떨어진다.

B.C.주 산업상 5일간 한국방문

(서울 10일=연합) 브리티쉬·콜럼비아주의 산업및 소기업개발부 돈·필립스장관이 5일간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11일 서울에 도착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따르면 한국방문기간동안 필립스장관은 브리티쉬·콜럼비아주의 광물및 산업자원 개발작업에 관한 한국의 협조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필립스장관은 또 한국에 에너지절약형 목조가옥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출입국 절차 간소화

(서울 11일=연합) 한국은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 더 많은 관광객을 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크레딧·카드사용을 권장시킬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10일 발표된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교통부의 특별조치의 일환이다.

교통부는 또 전국의 자동차대여업 조직을 확대하고 호텔종업원및 관광요원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며 도로및 공원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87년 5월을 목표로 점차적으로 실행될 계획이다.

김현장·문부식에 사형
대구고등법원 선고공판

(대구 13일=연합) 대구고등법원은 13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인 김현장(32), 문부식(23)등 2명의 피고인에 대구고등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은 방화, 살인및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됐었다.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만으로도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

지난 3월18일의 부산 문화원방화로 1명의 한국대학생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대구 고등법원은 또 김현장을 교구내에 은둔시켜준 죄로 구속된 최기식(40)신부에 3년징역및 2년간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최신부는 국가보안법및 범인은익죄로 기소, 고등법원검사로부터 3년징역·3년자격정지를 구형받았었다.

한편 고등법원은 김은숙(23), 이미옥(21) 두 여성피고에는 10년징역·7년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이 둘은 방화협조죄로 기소됐었다.

"한국교회조직은 정권 견제세력"

(뉴욕지사)(뉴욕타임스)지의 기자였던 「헨리 스콧 스톡스」기자는 지난달 28일자(일요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서 민주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에 대해 분석하면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아직 시기상조이며, 미국은 한국의 통치자가 누구이든 밀 수밖에 없다는 견해와, 한국민이 35년전 미국이 시작해 놓은 민주주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아직도 상충되고 있는 2개의 견해를 소개했다.

스톡스기자는 현정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조직을 가진 기독교(가톨릭, 신교)운동가측은 미국이 특히 월남전 비극이후 한국의 진로를 바꾸도록 나설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가적인 이유로 미국정부가 인권문제를 간섭하지 않으려 해도 인권운동은 계속할 것이며, 교회는 박해 아래 번성한다는 것이 교회측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 알 림 ~

본사 휴간및 휴무

성탄및 연말연시를 맞아 우편공사가 24일(금), 27(월), 31일(금)은 완전 휴무하고, 본국서 오는 한국일보 본판은 1월2일~5일자가 발행되지 않기때문에 토론토 한국일보는 1월3일및 4일자가 발행되지 않고 기타 신문은 정상 발행됩니다.

다만 본국판 30일, 31일자는 토론토판 1월5일자에, 본국판 1일자 신년호는 토론토판 6일자와 함께 발행되겠읍니다.

본사 휴무일은 다음과 같읍니다.

◉12월24일(금) 12시30분부터 27일(월): 25일 공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
◉31일(금): 우체국 휴무관계
◉1월3일(월): 신정 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

— 토론토 한국일보사 —

눈싸움인지? 풋볼인지?

◆지난주말부터 기온이 급강하, 13일 토론토지방은 영하 13도로 떨어졌다. 기온은 14·15일은 약간 풀린후 15일이후 다시 추위가 계속된다고.

사진은 NFL뉴잉글랜드·패트리옷과 마이애미·돌핀스의 풋볼경기중 눈을치고 있는 선수들. 패트리옷은 게임종료 4:45분초를 남겨놓고 존·스미스의 필드골로 3:0으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나이아몬드·순금 단골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536 1692
R.245 3539

강찬영
변호사사무실
410 DUNDAS ST. E.
☎ : 961-2417
(12월20일부터)
537-3171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도파에서
준비하세요.
프랑스·이태리산 명품 일절
한국토산품 (유리케이스 포함)
크리스마스카드·신년 카드등
■ 고국에 부모·형제·친지께 선물을 보내실려면 미도파에서 상의하세요.
■ 밍크 쇼는 성황이어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536-1692 R.245-3519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김택규 목사 취임

중앙한인연합교회

◆ 김택규목사

한인교회에서 분리된 중앙한인연합교회가 모교회에서 물로 갈라진 지 1년만에 김택규(46)목사를 초빙해와 12일 목사취임을 환영하기위한 특별예배를 가졌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3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양분된 한인교회는 반병섭목사를 담임으로 하는 한인(연합)교회와 김목사를 담임으로 하는 중앙한인연합교회의 두 교회로 완전히 갈라졌다.

새로 부임한 김목사는 36년 강원도에서 출생, 60년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특별상담과정및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사던·메소디스트·유니버시티의 신학대학원을 졸업, 신학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김목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200여 교민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향한 시발점에 있는 지금 자신의 목회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목사의 취임은 토론토지역노회 중앙시찰구의 대표인 알·맥코넬씨, 캐나다연합교회총회장인 클라·맥도날드목사, 중앙한인연합교회가 빌려쓰고 있는 성·누가연합교회의 휜리목사등이 지켜보았다.

맥도날드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신이 13년전 이교회의 목사로 재직할 당시 몇명의 한국인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교회당을 빌려줄 것을 요청, 수락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총회장이 되어 한국교인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69년 창립, 착실한 성장을 해온 「한인교회」는 내분으로 81년7월 목회자로 있던 유재신박사가 사임했었다.

한인교회가 내분이 일자 당시 소속교단인 노회측은 조사위원회를 구성 교회문제를 직접 조사했으며 지난해 12월9일 교회내부의 두세력을 토저히 합칠수 없다고 판단, 한인교회를 폐쇄하고 두개의 새로운 교회를 창설하라고 명령했다.

분파직후 두교회가 다같이 빌려쓰던 성·누가연합교회(Saint Lake United Church)를 함께 떠났다가 중앙한인연합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다.

김세레나 "새타령에 녹아난 한인회 망년파티

◆김세레나양의 노래가락에 흥이난 교민 정병조씨가 덩실 덩실 춤을 추고 있다.

가수 김세레나의 「새타령」에서부터「아베마리아」까지의 다양한 레퍼토리와 영어가 섞인 조크는 400여 교민들을 웃음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망년의 한때를 보내게 했다.

지난 10일밤 다운타운홀리데인에서 개최된 토론토한인회(회장 박인순) 망년파티에는 카나다 IOC(올림픽위원회)위원 제임스·웰러씨부부와 잉호프씨부부등 외국손님과 이상훈총영사등 한국기관인사, 한인회관계자와 일반교민들 400여명이 모였다.

81년 9월에 출발한 박인순한인회장단은 오는 1월15일의 총회를 끝으로 그 임기가 끝나 이번 망년회는 송별식을 겸한 파티였다.

박회장은 외한은행, 실업인협회등에 한인회에 적극협조했다는 감사패를 전달하고 임원들에게도 일일히 공적을 치하하는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했다.

약간 지리하게 한인회감사패전달식을 지켜본 청중들은 김세레나의 간드러진 민요연속에 흥을 돋구기 시작했다.

파티가 무르익자 한복차림을 한 교민 정병조씨는 김세레나양의 새타령에 맞춰 디스코인지 고전무용인지를 모르는 춤을 덩실 덩실 추기도.

한복차림의 김세레나가 너무 덥다고 불평, 청중들은 옷을 벗으라고 소리쳤다. 옷을 벗은 세레나양은 우아한 드레스차림으로「아베마리아」를 열창하기도 했다.

한인회 망년파티는 김세레나양외에도 교포가수 김미리자양의 노래를 즐기면서 밤1시까지 보냈다.

동우잔치 성황

200여명, 프로다양

토론토동우회(회장 원영신)는 지난 11일밤 7시~새벽1시15분 스카이라인호텔에서 200여명의 동우가족과 30여명의 외부인사 참석으로 성대한 연말잔치를 벌였다.

김진현총무 사회로 진행된 제1부 순서는 원영신회장의 인사말, 김창범씨(신세계여행사)에 대한 감사패 증정등으로 이어진 후 저녁식사로 들어갔다.

최영호(색스폰)·신상철(기타)·박홍(올갠)·최장복(드럼)·4인조악단의 반주에 가수 박소영양의 노래들을 곁들인 2부순서는 백용빈씨사회로 사교댄스와 경품추첨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내빈중에는 박영철부총영사, 최승락 외환은행장, 이원순 조흥은행사무소장, 조병여 상공인협회장, 이종철박사(농학)등도 있었다. 이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산하 한국인삼연초연구소 재배연구실장으로 현재 연구차 겔프대학 유학중이다.

이 파티의 흥을 돋운 박소영양은 「목포의 눈물」,「돌아오라 부산항」,「이별」,「오동잎」,「사랑해」,「잘있거라 두만강」등 20여곡을 불렀다.

한편 식당 한국관경영자 나옥녀씨(전직 TV탤렌트)도 유행가를 불러 박수를 자아냈다.

경품 당첨자중 최고행운은 김영상씨에게 안겨졌다. 김씨는 신세계여행사 제공 한국왕복 항공권을 받았다.

김씨는 마침 토론토 한인 중등부 아이스하키 선수인 아들(중1)이 너무 어려서(12세) 모국 동계체전 판견 선수단에 끼지 못했지만 모처럼 항공권이 생겼으므로 아들을 선수단 일원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즐거워했다.

◆한창 흥을 돋운 동우잔치

대한교회 창립8주년

11일 기념예배 가져

토론토대한교회(담임목사 조남유)는 11일 오후6시 많은 내빈과 교우들이 모인 가운데 본교회당에서 창립8주년 기념예배를 가졌다.

조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념예배에 참석한 내빈중에는 최근 명칭이 바뀐 토론토감리교회(구:써미나교회)의 박춘하목사, 토론토한인연합교회의 이상철목사, 외슬리감리교회의 여응순목사, 미시사가연합교회의 유환진목사, 토론토대한교회가 빌려쓰고 있는 성·안드레장로교회(St. Andrew Presbyterian Church)의 맥퀌비목사등이 포함되었다.

연합교회의 이목사는 이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기념설교를 했으며 맥퀌비목사는 축사를 했다.

1972년 12월첫주일 성·안드레장로교회에서 20여 신도들이 모여 첫예배를 드림으로써 발족된 토론토한인교회는 82년 4월 현조남유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하기까지 목회자가 3명이나 교체되었다.

교민동정

◆박영철(토론토부총영사)=조카딸 임경희양 결혼식을 지난 11일 한인교회에서 성대하게 가졌다.

연극인 이광민씨의 처남이며 휘문고교출신인 신랑 정태조군과 임양의 결혼식에는 수십명의 한국기관원을 비롯, 거의 모든 교민단체장들이 모였다.

양가의 친척들을 다 알고 있는 인사들은 신랑, 신부측 접수처가 달라 애를 먹기도 했다.

社說

지령(紙齡) 1,000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은 현대생활에 있어서의 언론의 비중을 지적한 것이지만 이 경우의 「신문」이란 바른 신문, 생활에 도움되는 신문을 말한다.

따라서 바르지 못한 언론이 있는 사회는 그로 인해서 해를 받지 이득을 얻지는 못한다.

본 〈토론토한국일보〉는 지난 8일자로 지령 1,000호를 돌파했다.

우리는 교포사회와 호흡을 같이해온 8개성상을 돌아 보면서 깊은 감회에 빠지는 한편 좁은 이민사회라는 역경속에서도 1천번의 바른 신문을 만들어 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민자들의 정착에 도움주고 우리사회의 발전속도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본란은 본보의 업적을 나열하거나 자화자찬할 의도는 없다. 다만 75년4월 주간 캐나다뉴스 창간호를 낸 후 6년만에 일간지로 성장했고 가장 많은 곳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으로 자란 뒷면에는 양식있는 독자층의 두터운 지지와 호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한다.

이제 우리는 「지령 1,000호」라는 장수나 이를 더한 층의 사명감, 중책감을 안겨주는 계기로 받아들이며, 더욱 바른 신문을 만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바이다.

바른 신문을 만들려면 제작진의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신문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도 중요하다. 즉 좋은 신문을 만들려면 사회의 좋은 호응이 있어야 한다.(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식의 논법은 도외시 한다.)

예를들면 기사에 불만을 품고 보복적으로 광고를 끊어버리는 광고주도 있고 음악논평이 틀렸다고 구독을 즉시 중단해 버리는 지휘자도 있다.

기사가 개인적 비위를 건들였다고 부모까지 모시고 와 농성하는 인간이 있는가하면 라이벌단체에 대한 기사를 쓴 것은 신문사가 싸움을 붙이기 위한 계략이라고 비난하는 단체도 있다.

나쁜 것을 나무라고 좋은 것은 잘했다고 기사화하면 신문사가 중립성을 잃고 편파적이요, 편견적이라고 말한다. 신문의 불편부당성의 의미를 혼돈하는 것이다.

반대로 분명히 기사가치가 없는데도 기사를 안 실어준다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교포도 많다. 또 단체의 경우로서 새 임원진 또는 이사진구성을 신문사에 통고해 줄때 직책을 수락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마구잡아 넣어, 후에 신문사가 항의받은 사례도 허다하다.

원래 교민사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좋은 일에서나 궂은 일에서나 특정인의 이름을 내기도 조심스러운 때가 많다. 왜냐하면「아무개」라면 알만한것이 친구요, 친척이요, 사돈이며, 같은 계모임회원 등등이기 때문이다.

굵직한 광고주의 뒷받침도 없는데다가 교민사회는 좁다. 여기에 교민들의 협력과 성원마저 없다면 좋은 신문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역경에서 우리는 정의를 지키며 지령 1,000호를 맞았다. 이것이 1만호, 10만호로 나이를 더해 갈수록 우리는 더욱 올바른 신문을 제작할 것을 다짐한다.

〈독자 투고〉

양로원문제에 대해

〈안병한 목사께 드리는 글〉

정 일 송 (전 런던한인회장)

◆정일송씨

본인은 오늘「갈보리한인장로교회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의 명의와 귀하의 인장이 찍힌 서신을 받고, 그 내용이 사사로운 개인사정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받아 한인양로원을 건립하게 되었읍니다」라고 하므로 공개로 답신을 드립니다.

먼저 몇가지 질문부터 하겠읍니다.

첫째: 귀하가 추진하고 있는 양로원은 「갈보리한인장로교회 한인양로원」과 「한인양로원」중 어느 것인지요?

둘째: 귀하의 교회에서는 양로원 건립을 위하여 얼마만한 자금을 모금하셨는지요?

세째: 귀하의 교회는「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받아 한인양로원을 건립하게 되었읍니다」라고 하셨는데, 토론토에 있는 30여개 교회가 신청만하면 누구든지 귀하의 교회처럼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양로원을 건립할 수 있는지?

첫째질문에서 그 답이「갈보리한인장로교회 한인양로원」이라면 소생에게까지 협조나 지도편달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귀 교회의 교인들에게나 의논하십시오. 만약「한인양로원」, 즉 한인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양로원의 건립이라면 그 명칭이 여하하건 귀하는 그 책임과 수고를 한인사회에 넘기고, 귀하의 사업인 신앙과 전도에 열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력이 있으시면 한인사회를 도와주십시오.

둘째질문에서 모금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양로원을 건립하는데 쓰여져야 하므로 귀하의 교회 자체에서 양로원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한인사회에서 양로원을 건립하는데 기증하십시오. 하느님의 커다란 축복이 있을것입니다. 만약 기증하기가 싫으시면 그 돈을 회사한 본인들에게 돌려주어서 그 본인들로 하여금 다 같이 한인양로원건립에 직접 회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교회의 일반헌금이나 교회건축을 위해 모인 돈이라면 그 뜻에 맞도록 쓰는 것이 귀하가 믿고, 또 남에게 믿기를 권하는 그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세째질문에서 그 답이 "No."일 경우, 받지 못하는 교회는 교인수가 적어서인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인지? 귀하의 교회가 한인사회에 배정될 수 있는 그 「적극적 지원」을 독차지해서인지? 귀하는 다른 교회가 능력이 부족하여 그 「적극적 지원」을 받을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지? 아니면 한인사회에 배정될 수 있는 한정된 지원은 한인사회 전체가 누릴 혜택이며, 전체의 뜻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므로 어떤 특정 종교단체가 주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안하는 것으로 아는지?

언젠가 귀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을 때, 귀하는 서울법대졸업으로 소개되었고, 귀하의 설교는 잊혀진지 오래지만 아직도 귀하의 학력소개는 생생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에게 (1)교민들의 피땀 흘려 수고한 소득에서 세금으로 떼어간 댓가로 주어지는 혜택을 가로채는 것은 무주물인 경우처럼 선취득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든지, (2)사업을 추진시켜놓고, 외사를 묻는 것은 법률상식뿐 아니라 도덕적인 양심으로도 허락되지 않는다든지, (3)행위의 중단이나 자수가 죄의 성립을 면하나 형량을 경감하는데 참작됨과 같이 나중에 전교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부당함을 알고 한시바삐 전체 교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등의 설명을 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귀하가 갖추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교민사회에 질서를 세우고, 체계있는 조직으로 한인회가 발전하여, 또다시는 어떤 특수한 단체가 전체 한인사회의 권익을 탐하는 일이 없도록 기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한인들 전체의 노력으로 멀지않아 밝은 한인사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한인사회의 한사람 한사람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 • —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의 사나이

〈129〉

金聖鍾 작

출발 ⑩

웡을 인질로잡은 그들은 창을 협박하고…

그녀의 얼굴빛이 어두워지는가하더니 이내 눈에 물기가 번졌다. 그의 조용한 한 마디 한 마디가 단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저는요? 저는 어떠하죠?』

『함께 떠나고 싶어. 결혼해서 함께 떠났으면 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엄마가 계셔요. 엄마 혼자 남겨두고 떠날수는 없어요.』

『엄마도 함께가지.』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데려가주실거예요?』

『물론…』

그녀는 기쁨에 넘쳐 활짝 웃었다.

『나하고 결혼해주는거지?』

『네, 좋은 아내가 되겠어요.』

『고마워. 마치 꿈을 꾸고있는것 같은데. 내가 결혼을 다 하다니 말이야.』

그들은 빛나는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언제 떠나실거예요?』

『내일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수일내에 떠나기로 했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렇게 갑자기 떠나야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이야기해줄께. 가능하면 모든 걸 비밀로했으면 좋겠어.』

그녀는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의 의견에 절대 따르겠다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웡과 헤어지고나서 그는 다시 화자진료에 임했다. 이것으로 9년간의 치과의사 생활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왠지 우울했다.

그가 트라이엠팩의 마수로부터 탈출할 결심을 굳히고 마지막 진료를 끝냈을때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자가 걸어온 전화였다.

『홍콩을 떠나시겠다고요?』

朴男 그림

여자는 힐난하듯 물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떻게 알았지?』

『웡이 자백했어요.』

『뭐라구?!』

『이럴줄 알고 우리는 대책을 세운거죠. 웡은 지금 우리손에 있어요. 웡의 생명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어요. 아시겠어요?』

웡을 납치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악랄한 놈들… 어디두고보자. 용서하지않을테다!』

그는 분노에 차서 부르짖었다.

『흥, 대단히 화가 나신 모양이군요. 웡은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가 악랄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웡을 당장 돌려보내!』

『내 마음대로 할수있는 일이 아니예요. 웡을 바꿔줄테니까 잠깐 기다려요.』

조금후 웡이 나왔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울며 말했다.

『무서워요…살려줘요…이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웡, 용기를 내!-구해줄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거기가 어디지?』

『모르겠어요. 짐작도 가지 않아요.』

慶北中高等学校
송년 잔치

귀여운 동문들의 자녀와 더불어 82년도 송년잔치를 베풀고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 없이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18일(토) 오후7시
장 소 : CLINTON HOUSE 2층 ☎ : 535-9541 (693 Bloor St. W.)
연락처 : ☎ 278-9886(Mr.리) ☎ 746-2471(Mr.정)

慶北中高等学校
同窓会長
이동일

아 글쎄,
일단 와 보시라니까요!

분위기에 따라
음식맛도 달라집니다.
역시 귀한 손님은
멋과 품위가 있는 분위기에서
정성스럽게 모셔야 합니다.
토론토의 중심에 자리잡은
저희 그라나다에 오시면
은은한 분위기에서
최고의 산해진미를
즐기실수 있읍니다.
친절한 쓰비스와 따뜻한 싱거의 노래…
아, 글쎄 두 말씀 마시고
일단 와 보시라니까요.…

…… 크리스마스 ·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많은 파킹장〉

〈고급 그라나다레스토랑〉
920 Yonge St.
923-3060

가격을 대폭
내렸읍니다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
한국식품이라면 제일 식품
712 BLOOR ST. W. TOR.(아리랑식당옆) 532-1054

미군수뇌들 레건정책 반대
MX미사일 배치 철회 촉구

(워싱턴) 국가최고 군사협의기구인 합동참모본부의 대다수 멤버들은 지난달 레건 대통령의 MX미사일 밀집배치 계획을 철회하도록 건의했다고 존·W·베시 합참의장이 8일 밝혔다.

존·W·베시 합참의장이 상원세출위원회에서 행한 이같은 증언은 MX미사일 생산예산을 삭감한 7일의 하원조처에 잇달아 말썽많은 MX미사일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던졌다.

베시장군은 상원위원회에서 『일부 합참멤버들은 레건 대통령이 제반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이전에 MX미사일 배치를 결정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육·해·공군및 해병대사령관등으로 구성된 4명의 합참본부 멤버들중 3명은 현시점에서 MX미사일의 밀집배치 계획을 추진하지 말도록 건의했으며, 나머지 1명만이 미·소무기감축회담에 기여할 것이란 점에서 MX계획을 찬성했다고 베시장군은 증언했다.

그러나 베시장군은 합참의장인 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다만 합참은 MX미사일 자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네바다주 남부 모래사장에서 지난 7월22일 실시된 MX미사일 실험.

조촐한 성탄축하회
한인YMCA·베타클럽

토론토한인YMCA(이사장 전택균)·베타와이즈맨클럽(회장 홍승규)합동 크리스마스 축하회가 지난 10일밤 6시30분~10시15분 토론토 웨스트엔드 Y회관 2층강당에서 60여명의 관계자, 내빈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프로로 엮어졌다.

김순창 부이사장 사회, 반병섭목사 한인(연합)교회 담임 의 성탄메시지 설교의 크리스마스예배가 있은 뒤, 호세환씨 지도, 이웅건, 권혁일, 유만식기타반주로 캐롤제창, 이웅건군의 기타자작반주 「세노야」, 「친구」 독창 유만식·권혁일 2인조의 기타반주 크리스마스노래 2곡, 배미애씨의 거문고 독주가 있었다.

이날 유공자 표창으로 3명의 와이즈맨 전임회장과 Y사업 협조자 2명, 즉 알파클럽 초대회장 차선겸씨, 베타클럽 중경회장(2대) 김순창씨, 동 직전회장(3대) 이석현씨, 다액찬조자로 김명규·황대연씨가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전택균이사장의 식사기도로 만찬을 끝낸 일동은 게임순서에 들어가, 박옥선씨지도로 먼저 폭댄스를 즐기고, 상품이 곁들인 각종 오락게임을 가졌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크고 작은 10여개의 상품을 받았다.

모든 행사는 하오10시15분 조남유목사의 마지막 기도로 대단원을 이루었다.

해마다 한인Y성탄파티는 200여명이 모여 호텔에서 다채롭게 거행되어 왔는데, 이날 파티에 예년보다 2분의 1이하로 참가자가 준 것은 한인회파티·동창파티등과 겹친데다가 해마다 공동주최해온 알파클럽이 별도로 축하회를 갖기로 금년 이탈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세 평준화 계획
산업경쟁 완화위해

서울 13일=연합) 한국정부는 관세법을 개정, 현재 0%에서 최고 100%까지 부과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평준화할 계획이다.

관계 정부기관은 관세평준화계획은 국내및 국제산업의 경쟁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세당국은 83년도에 수입상품의 절반정도에 20%의 관세를 매길것이며, 점차 이를 확대 86년까지 전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평준화할 계획이다.

한국정부는 고철과 원목등 재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2%로 통일시킬 계획이다.

교황암살 불가리아지령
체포된 터키인 주장

(로마-외신종합)교황 요한·바오로 2세 암살미수자로수감중인 터키인 아메트·알리·아흐자는 이탈리아 당국에 장시간에 걸친 자백을 하면서 그가 불가리아 비밀정보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3개의 주요 이탈리아신문들이 8일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최대일간지인 밀라노의 〈코리에레·델라·세라〉는 『교황살해 음모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꾸며졌다』고 보도했으며, 로마에 있는 2개의 일간지들인 좌경의 〈라·레푸블리카〉와 보수적인 〈일·템포〉도 이같은 보도를 했다.

이들 3개 신문의 보도는 1981년5월13일 성베드로광장에서 교황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현재 종신형을 받고 있는 터키출신의 우익테러리스트 아메트·알리·아흐자가 이탈리아 수사당국에서 행한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자백문 요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신문은 아흐자의 자백문 요지를 입수한 경위와 취재기자들이 직접 자백문을 보았는지, 또는 자백문에 관해 당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는지의 여부등에 관해서는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경찰관리들은 이같은 신문보도에 논평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탈리아경찰은 2주일전 발칸항공사무소 책임자인 불가리아인 세르게이·이바노프·안토노프를 아흐자와의 암살공모 혐의로 체포한바 있다.

한국, 기독교연구에 붐일어
세계 두번째의 성경보급국

(서울 10일=연합) 불교의 잔재가 아직도 깊숙이 남아있는 한국은 금년도에 172만개의 성경을 수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의 성경보급 국가가 됐다.

한국바이블소사이어티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4,262만권의 성경이 출판되어, 그중 122만권이 전세계 57개국에 보급됐다. 보급국가중에는 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17개국, 유럽 7개국및 미주국 21개국이 포함됐다.

한국바이블소사이어티는 또 중공과 남미의 크리스찬들을 위한 중국어및 스페인어판 성경도 발간했다.

작년에 한국에서 발간된 종교서적은 신약 269만권, 복음서 32만권, 기독교에 관한 팜플렛 3,758만권등이다.

바이블소사이어티는 한국이 미국 다음가는 성경보급국가로 꼽히는 이유로 81년이후 기독교신자가 전례없이 많아지고, 성경연구붐이 일었으며, 해외에서의 주문이 많아진 것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인 16명중 한명이 성경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인의 통계는 5~6명중 1명꼴이다.

정부의 종교관계 통계에 따르면 82년1월 현재 한국민 1,113만명이 불교를 믿는 반면, 763만명이 신교를, 143만명이 구교인 천주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밍크·폭스·세블·라쿤

밍크

록키모피 정승규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 0189

性教育 모두 말합시다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同性愛 사회적으로 용납될수 없다

사춘기를 맞아 제2의 성징이 나타나게 되면, 남녀할것없이 잠정적 혹은 일시적으로 동성애의 경향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아직은 어려서 원래 남자아이 끼리, 여자아이 끼리 노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곧 동성애라고 특별히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S언니니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도 의형제를 맺느니 하는 행위들은 역시 이런상태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는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리 길게 가지는 않고 한창시대가 끝이나거나 기타 환경이 바뀌면 곧 없어지게 되는 정도다.

어느 미국 평화봉사단원 여성이 한국에는 동성애가 많은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렇지 않은데 무엇을 보고 동성애라고 보았느냐 했더니 한국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도 서로 손을 잡고 다니고 때로는 팔을 끼기도 하며, 잠을 잘때도 함께 자고 목욕탕에서도 서로 등을 밀어주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동성애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으로 그렇지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원래의 생활풍습이 그러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방수가 적으니 한방에서 여럿이 잠을 자게되고 이부자리가 넉넉치 못하니 한이불을 쓰게된다.

이런 일들은 습관일뿐 동성애일 수는 없다 이런 일이 동성애가 아니라고 할경우 한국에는 원래 동성애의 경향은 그리 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하기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않은 행위 또는 양상이고 보면 흔하다고 보여질만큼 노출이 되어있을 까닭이 없고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수가 적은 것이라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원래 성에 대해 엄격했던 배경에서인지 여하튼 동성애의 형태가 흔하지 않은것은 사실이다.

서구 여러나라에는 이런 형태가 적지 않게 있고 또 그것이 노출되어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법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것 같다. 극도로 발달된 개인주의가 이런 상태를 합리화 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져야 하고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생활의 모습으로 대표되고 있는 처지에서는 동성애는 아무래도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양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왕에 떳떳하지도 자랑스럽지도못한 상태라면 아무리 선진국에서는 어떻다고 한들 좋지 않은 습성, 태도까지 따라야 할 것은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런형태는 없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서부지점 ☎ 243－9544
해밀톤지점 ☎ 1－385－1485

여러분의 년말연시 축하광고및 인사는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 한국일보社에게 맡기십시요. (☎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TV판매
☎ 532－0210 손병헌

감사합니다

제7회 사진대회를 위해 상품을 기증해 주신 아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회당일은 물론 시상식및 전시회를 마칠수 있게 해 준 교민들과 임원 여러분, 또 바쁘신 중에도 모델을 서주신 함승희, 박은희, 허윤경씨및 이현종어린이에게 고마운 뜻을 지면을 통해 표합니다.

(기증업체)
문인협회 : $50.00
웨이드사이드화랑 : 전시장 제공
원영희(패밀리·포토) : 칼라필름
이인덕(새한칼라) : 칼라필름
크래식·카메라 : 프래쉬·라이트
(Classic Cam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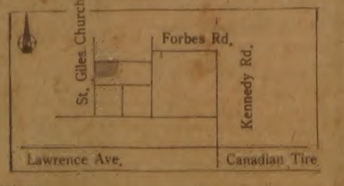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축 창립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하나님의 섭리속에서 세워지는 본 교회의 창립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12월19일 오후5시
장 소 : St. Giles Anglican Church
35 Kecala Road (☎ 755-5316)
연락처 : ☎ 752－9860, 752－9727



대한예수교장로회 토론토소망교회
담임목사 서인구
창립위원 일동 배상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政治議案 처리」合意

3黨총무、두차례 會談끝에 극적突破口

常委 오늘부터 正常化

國會法개정 來4월까지 매듭
「地自」6월 「학생의날」11월까지

政治議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왔던 與野는 9일 국회법과 지방자치제법 개정안등 일부 政治議案 처리방법에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근1주일째 空轉해온 국회常委도 빠르면 10일부터 정상화 될것같다.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들은 이날 상·하오 두차례에 걸친 회담끝에 의안중▲국회법은 내년 4월말까지 小委활동을 마무리한뒤 改正여부를 결정짓고▲지방자치제법은 내년 6월말까지 관계 小委활동을 적극 벌여 중간 결론을 작성하며▲民韓黨이 제출한 「학생 독립기념일 제정」건의안은 내년 11월3일까지 처리한다는 원칙아래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한다는것을 모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與野는 民韓·국민당이 각각 제출한 商協法개정안과 農·水·畜協의 任員任免에 관한 법률 폐지법등 12개법안에 대한 국회農水産委의 小委활동을 이번會期内에 마무리짓고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중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치의안처리와 국회常委정상화와 관련한 총무들간의 잠정합의에대해 民韓·국민兩黨은 완전히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民韓黨은 10일 상오 院內對策委를 열어 논의할예정인데 정치의안 처리에 새로운代案이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데다 더이상 국회常委를 空轉시킬수 없다는 名分때문에 대체로 수락할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이 끝난뒤 李鍾贊民正총무는 政治議案을 포함한 계류議案의 처리방안과 관련 「계류議案에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構想을 해야할 법안이 있는만큼 常任委의 小委활동을 재개시켜 地自制法은 내년6월末까지 중간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류중인 국회법개정안에 언급,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上半期를 경과한다는 원칙아래 기본적인 골격부터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이 우수공무원들을 접견, 격려하고있다.

使命感갖고 능동적奉職을
全대통령, 우수公務員 招致격려

全斗煥대통령은 9일하오 청와대로 초치, 다과를 베풀고 금년도 우수공무원受賞者 1천28명가운데 각부처가 선정한 대표수상자 1백명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모든공무원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큰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職分완수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다』고 말하고 『이를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각자가 主人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일을찾아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奉職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공무원은 항상 국민의 法規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公務수행에 있어서는 물론 日常생활을 통해 조금도 몸가짐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해야 하겠다』고 당부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이처럼 본分을 완수할때 공무원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우리는 국가적목표를 힘어려움없이 성취해 나갈수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朴贊兢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印大使 信任狀받아

全斗煥대통령은 9일상오 청와대에서 아룬다티·고오스 駐韓인도대사(女)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이 배석했다.

美、北傀대표부(駐유엔)再檢討

吳남철"醜行"관련 外交官滯在·활동등 포함

【워싱턴=李文熙특파원】美국무성은 8일 북괴외교관 吳남철의 여인추행 미수사건과 관련, 유엔주재 북괴대표부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만·반즈東北亞담당 대변인은 유엔주재 북괴대표부 3등서기관 吳남철의 美여인 추행미수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유엔주재 외교관들은 직무에 관련되는 기능적 면책특권만이 부여되며 이 직무수행이라고 볼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국법에 의해 처벌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해설

野의 끈질긴要求에 民正서 鐵壁허물어
突破口 열었지만 계류議案등 문제山積

지난 週末부터 空轉을 계속해온 막바지 국회운영은 與黨측이 野黨의 체면고려, 政治議案에 대한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정상화 되게되었다.

3黨총무들이 그동안 여러차례 접촉을 했는데도 계속 與野의 주장이 平行線을 달리자 야당측에서 3黨代表회담등을 제의하기도 했지만 총무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일상하오에걸친 마라톤협상끝에 어떻게하든 해결점을 찾게된 것이다.

社會漫評

「銀河列車」가 됐읍니다…

地平線

원래 大學을 가리키는 「유니버시티」란 말은 「길드」즉 組合을 뜻한다. 中世때 이탈리아 볼로냐에 있던 UNIVERSITAS는 學生의 「組合」혹은 교수의 「조합」이라는 의미였다.

株式會社 자본금 5千萬원 이상

閣議 商法개정의결 既存업체 3년내 增資해야

有限회사 1千萬원이상, 株式 액면價 최하 5千원으로

정부는 9일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최저자본액을 5천만원이상으로하고 최후등기후 5년이경과하도록 신고가없는 휴면회사는 해산으로 간주하며 유한회사의 자본액역시 1천만원이상으로 하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이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기 내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주식액면가를 현행 5백원이상에서 5천원이상으로, 회사채 액면가는 현행 1백원이상에서 1천원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이미 설립돼있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미만인 회사는 이법 시행후 3년이내에 증자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야하며 1주(株)의 액면가도 5백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됨에따라 법시행후 3년이내에 주식병합절차를 밟아야한다.

개정안은 또 기업자금조달의 원활을위해 이사회결의로 증자할수 있는 한도를 현행 기(既)발행주식의 2배에서 4배로 늘렸으며 사채발행 한도액도 자본과 준비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던 것을 2배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또 감사의 지위 안정을위해 임기를 현행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한편 권한도 회계감사에 국한하던 것을 업무감사권, 이사회 출석진술권, 유지(留止)청구권등으로 대폭 강화했고, 이사역시 기업경영의 안전도모를위해 임기를 「2년초과불가」에서 「3년초과불가」로 연장하고, 이사회의 권한도 현행 업무집행과 지배인의선임및 해임외에 지점의 설치와 폐지및 이사에대한 직무집행감독권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업운영자금의 빈곤성을 타개하고 기업이윤의회사내 유보를위해 현금만으로 이익배당하던것을바꿔 이익배당의 2분의1 이내에선 주식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新春文藝 내일마감

소설·詩·時調·수필·동화·戲曲

★11일字우편消印접수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 큰뜻 이루게

<9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東亞絹織(株) (李奉守회장外 系列社 임직원) 1千32萬원

◇李奉守씨

◇李丞雨씨

▲東亞絹織(株)系列 代表理事 회장 李奉守씨外 임직원一同=1천32만7천1백원

▲大韓毛紡工業(株) 대표이사 사장 李廣守씨외임직원一同=5백34만7천2백원

▲社團法人 韓國建築家協會회장 李丞雨씨외임직원一同=83만원

▲한국일보社 사랑의집(街販) 회장 金德培씨외자부장一同=25만원

大韓毛紡工業(株) 李廣守대표外 5백34만원

韓國建築家協會	83만원
사랑의집 한국일보社	25만원
그랜드 예식장	20만원
대아 "	20만원
영동 "	20만원
축복 "	20만원

▲그랜드예식장=20만원 ▲대아예식장=20만원 ▲영동예식장=20만원 ▲축복예식장=20만원 ▲뉴코아예식장=10만원 ▲왕실예식장=5만원 ▲새마음예식장=5만원

뉴코아 예식장	10만원
왕실 "	5만원
새마음 "	5만원
평안면업사	12만원
관악稅務署 여직원會	10만원
成信商會 종로5街	10만원
貞陵 金秉高씨	10만원

▲성북구상월곡동774번지 평안면업사 대표 김전하씨외직원一同=12만원 ▲관악세무서여직원會=10만원 ▲종로5가314의19 成信商會 康泰龍씨=10만원 ▲城北區貞陵4洞 金秉高씨=10만원

The Permanent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 : (B)488－2444 (R)759－456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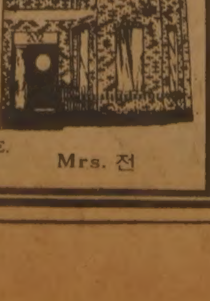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초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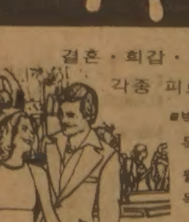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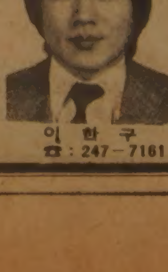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 · 3불(우송료포함)
구독신청 · 한국일보사
533·2361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Grant Brown
GM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 한 구
☎ : 247－7161
1575 WESTON RD.

대각사
大覺寺
자비의 전화 개설 안내
『따르릉～
자비의 전화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아파하여 그 해결책을 위해 상담에 응해 드리는 전화가 토론토에 자리했음을 알려 드리오며 교민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가내의 만복을 비오며 소원성취 이루소서…
혜관스님합장
☎ : 463～8998
(매일아침 8시부터 10시사이)
11 DAWSON AVE. TOR.

레바논·이軍 武力 충돌

—이巡察兵、國防省 진입싸고 발단

大統領관저 1.6km地點서 15분銃擊戰…쌍방 3명死傷

후 처음으로 베이루트근교에서 무력충돌이 발생, 레바논軍 2명이 사망하고 이스라엘軍 1명이 부상했다고 양국軍 당국이 밝혔다.

레바논軍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軍 무장순찰차 [illegible] 하려던 레바논軍경비병과 15분간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레바논軍성명은 이스라엘軍과 레바논경비병은 이스라엘軍 순찰차량의 국방성구내 진입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 [illegible]

또한 레바논소리방송과 목격자들은 레바논국방성과 군사령부건물이있는 야제르지구에서 이같은 총격전이 발생한후 이스라엘軍은 공로상에 검문소를설치, 지나가는차량에 총격을가해 2대의차량 [illegible]

◇폭파 위협 범인과 인터뷰 AP통신의 스티비·코마로기자㊧가 취재기자대표로 선정돼 4백50kg의 다이너마이트로 높이 1백67m의 워싱턴기념탑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사나이㊨와 얘기를 나누고있다. 【워싱턴 8日AP銃=聯合】

中共부의장 駐美대사로 임명 章文晋

【北京AP聯=聯合】 중공은 9일 부외상 章文晋을 駐美대 [illegible]

南阿共軍 게릴라 30명살해 아프리카 민족회의 基地서

【요하네스부르그(南阿共) AP=聯合】 南阿共軍은 남아공 내에 있는 [illegible]

수리남에 쿠데타說

좌익군사政府 전복기도

【살환(푸에르토리코) UPI=聯合】 南美국가 수리남에서 데시·보테르세 육군사령관(38)의 좌익군사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가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illegible]

"대학교육 개선을" 民權黨 대변인

해외協力廳 신설 白紙化

호메이니 後繼는…

오늘「選擧人團」위원 선출

후보 1百50명중 83명뽑아

호路線의 몬타자리등 有力

이란 최고지도자 호메이니 이맘이 사망할 경우 여기 [illegible] 후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선출되는 후계자는 [illegible] 선거인단인「전문가회의」[illegible] 위원선거가 10일 실시된다. [illegible]

【朴來富기자】

記者의 눈

經濟 정책과 銀行

【申相顯기자】

民韓、實名制수정안 否決땐 副總理등 解任案제출 방침

人事異動

外務部 ▲감사관 安世勳 (旅券관리관) ▲여권관리관 鄭普永 (여권1과장)(4日字)

本社來訪

▲朴東熹씨 (三喜投資金融社長) ▲申永徹씨 (同副社長) ▲高秉鎬씨 (同常務理事) ▲李康模씨 (韓國科學技術團體總연합회 사무총장) 신임인사

政局往來

◆과거 黑白論理와 무엇이 다른가

3차례 절충끝에 妥結…"國會法 骨格부터 檢證의사 吟味돼야"

◆柳총재, 총무회담「合意」에OK

◆3黨대표회담결론 不發로끝날듯

社說

外製選好와 가짜商標

—바른 商品知識과 廣告로 뿌리뽑자

商道義앙양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서는 법적제도장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商人이나 소비자 모두의 意識개혁이 필요하다.

보도를보면 경찰당국에서는 자기상점에서 제조한 구두나 의류에 위조된 외국의 유명상표를붙여 비싸게 팔아온 서울의 몇몇 양화점 또는 양장점 점주5명을 상표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한다. 이들은 자기상점에서만든 국산양화나 양장류에다 국내에서 위조한 프랑스·이탈리아등의 유명라벨을 붙여 일부 外製選好者에게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따위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이다. 한심스러운 상도의의 타락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국산품인것들을 이른바 保稅品이니 委託品이니하면서 속여서 파는 사례는 흔히 있는일이고 국산품에다 외국 유명상표의 라벨을 붙여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 또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록 외국제품이라고 할지라도 中古品에다 약간 눈가림손질을 해서 마치 新品인양 팔아넘기는 사기적수법도 아직 근절되지 않고있다.

이와같은 악덕商行爲가 현행法上 용납될수 없는 犯法행위임은 말할것 없고 국민경제의 발전이나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더이상 묵과할수 없는 것들을 방치한다면 국산품에 대한 국민의신뢰도를 떨어뜨리는결과가 될 뿐더러 그렇지 않아도 외제選好傾向이 적지않은 소비자로 하여금 그傾向을 한층 더 부채질하는 꼴이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유명상표를 「盜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말썽을 빚어낼 우려가 있으며 이런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商品의 對外的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외국상표無斷使用이라든지 [illegible] 때문에 해당국가정부나 소정代理者들로 부터 抗議를 받고있는터에 외국상표를 버젓이 도용하는행위는 속히 발본되어 마땅한것으로 보겠다.

다만 이경우 우리로서 문제시해야 할것은 가짜상표를 붙여 파는 商人못지않게 外製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일부 소비자의 무비판적 허영심도 탓해야할것이다. 아울러 가짜商品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빈약한 상품지식을 안타깝게 생각해야할것같다.

소비자들이 商品선택에 있어 뚜렷한 안목을 지니고 더구나 외국제유명상표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심이 틈에 배었지않다면 그토록 가짜외국상표가 활개를 치고 통용될 까닭이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가짜외국상표가 횡행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단속을 줄기차게 하고 소비자도 가짜외국상품을 비싸게사거나 속아사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소비자들이 상품지식을 높이고 적당하게 비교선택할수 있도록 새로운 側面에서의 소비자운동과 아울러 제도적보완조처가 병행돼야 할것으로 본다.

이와관련해서 정부가 내년부터국내 모든 제조업체들이 自社製品을 신문 잡지 TV 라디오등에 선전광고 할때에는 반드시 공장도가격 또는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시킨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보겠다. 가격표시와 동시에 品質 性能 含量 耐久時限 容量규격등에 관한 표시를 종용키로한것 또한 평가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상품가격을 뚜렷이 알리고 품질내용등을 소상히 표시한다면 소비자들은 어떤商品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것인지를 비교·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됨으로써 크게 자기 권익을 신장시킬수 있게된다. 나아가서 그같은 비교·선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품지식을 높이게 되어 불량商品이나 가짜외국상표가 더는 발붙일 수없게 될것도 자명한 이치이다.

美中近東司의 設置

—有事時 對韓방위支援에 餘波없길

美국방성은 中東, 페르시아灣및인도洋지역방위를 전담할 새中央司令部를 설치한다고 8일 공표했다.

내년1월1일을 기해 활동에 들어가는 이 中央司令部는 美 陸-海-空-海兵隊를 망라한 23만병력으로 구성되며, 그 本部는 신속배치군이 주둔해있는 플로리다州 맥딜공군기지에 잠정적으로 두게될것이라 한다.

中央사령부의 작전범위는 東으로 파키스탄, 西쪽으로는 이집트, 北으로 이란, 그리고 南으로는 케냐에 이르기까지 19개국을 포함하는것으로 알려졌다.

美軍이 主力을 이루는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軍사령부나 太平洋지구 美軍사령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새「中近東지구사령부」창설에 우리는 상당한 관심을 갖지않을수 없다.

미국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보면 이 中央사령부창설은 그 뚜렷한 한 보강이며 발전이라 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韓半島방위란 차원으로 범위를 좁혀 생각할때엔 이中央사령부창설이 그 對韓방위지원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그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中央사령부의 主力부대는 신속배치군(RDF)으로 형성된다고 발표되었다. 美 82공수사단, 제24보병사단, 제101공수사단 [illegible] 등은 부대들이 신설되는 中央사령부에 배속되게 돼있다. 이 부대들은 매년 한국에서 실시되어온 「팀스피리트」작전에 참여해 왔다.

뿐아니라 北韓이 대규모 南侵기습을 감행할 경우, 美本土나 하와이에서 한국방위차 달려올 선발대가 바로 이들 부대이기도 하다.

이런 신속배치군이 「中近東지구사령부」에 포함된 후에도, 일단 유사시 韓國등 미국의 방위공약지역에 긴급출동할지 (물론 그러리라고 믿지만)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있다.

美海軍戰略개념에 이른바 移動(SWING)전략이라는것이 있어 신속배치군이 설령 작전범위밖의 지역에 긴급출동 할수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적인것이 될수 밖에 없다. 主된 관심은 역시 中近東지역에 쏠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中近東지구사령부」창설과 함께 또하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것은 최근 美海空軍이 밝힌 새海上방위전략에 관한 것이다. 존·레먼 美海軍장관과 베른·오르空軍장관은 空軍이 西太平洋해역을 전면적으로 담당하고 海軍이 인도洋해역방위에 그力點을 두게된다고 지난 11월3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새海上방위전략에 따르면 韓國, 오끼나와및 필리핀에배치된 美공군기들과 오끼나와에 4대가 배치된것으로 알려진 美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西太平洋해로의방위를 전담하고 美航母기동함대는 인도양방위에 주력하게 된다는것이다.

이란사태가 일어나고 79년말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侵攻한이래 [illegible] 西太平洋에 常時配備된 美제7함대의 航母2척중 1척은 페르시아灣사태에 대비 인도양으로 차출되어 西太平洋방어에 다소간 공백을 빚어왔다. 美西太平洋주둔공군이 西太平洋해역 방위를 전담한다고는하지만 航母중심의 기동함대기능에는 미치지못할것이 뻔하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방위전략 우선순위는 70년대까지의 유럽—東아시아—中東에서 80년대로 들어와서는 유럽—中東—東아시아순으로 전환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짙게 한다.

「中近東지구사령부」설치가 페르시아灣과 中東石油의 확보에 뜻을 두고 있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자유세계 石油소비량 60%의 通路가 되어 있는 페르시아灣을 보호하려는 미국의방위전략에 理解가 가지 않는것은 아니나, 그로인해 미국의 對韓방위의지와 능력이 분산·약화되어선 안될것임을 여기 강조해 두련다.

캐나다 전역에 걸친

자동보온밥솥 ⊛SANYO

경품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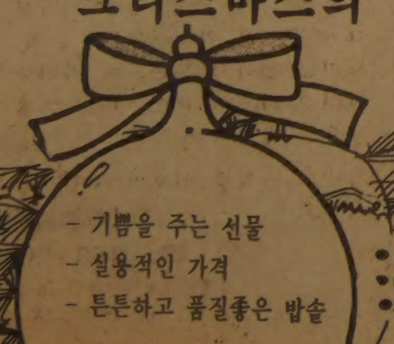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크리스마스의 이상적인 선물은 산요밥솥으로

지금 세일기간중에 구입하십시요.

결혼등의 어떤 예식을 위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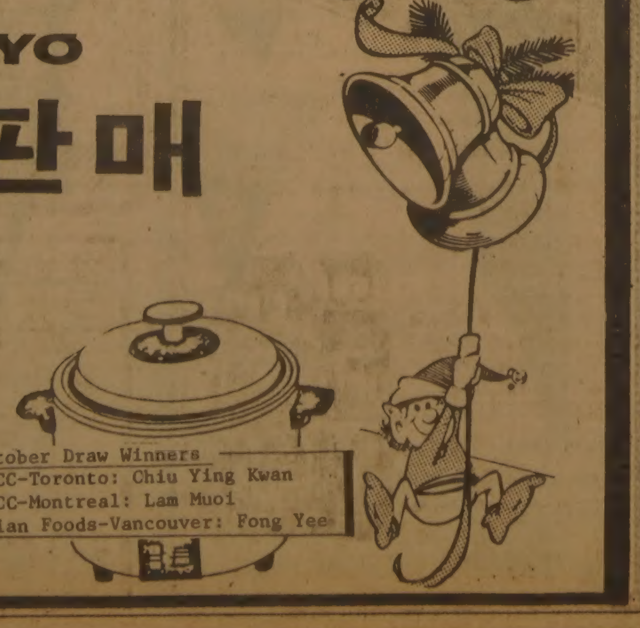
가장 이상적인 선물이 됩니다



- 기쁨을 주는 선물
- 실용적인 가격
- 튼튼하고 품질좋은 밥솥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bell ringers



October Draw Winners
JFCC-Toronto: Chiu Ying Kwan
JFCC-Montreal: Lam Muoi
Asian Foods-Vancouver: Fong Yee

北傀 생떼에 美 "強硬"

北傀대표부 문제로 飛火된 「吳남철사건」

비자發給·代表部규모·여행制限등 美國내의 각종活動 촛점

"醜行은 職務와 無關"

인사이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吳남철사건에 대한 8일의 미국무성발표는 이 문제를 두고 미국측 태도의 명백한 한계를 그은것이었다。비록 吳의 신분은 유엔에 주재하는 업저버단의 일원이기는하나 미국이라는 체재국으로 부터 엄연히 체류허가인 비자를 받아야하고 미국은 그 비자의 발급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기때문에 이날 발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지난 9월5일 뉴욕근교 웨스트체스터郡의 한 호수가에서 발생했던 북한대표부 3등서기관 吳남철의 미국여인 추행기도사건은 그동안 웨스트체스터경찰당국이 1급 성범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두를 촉구하고 있었으나 북한대표부측은 吳를 뉴욕시내 맨해턴의 숙소에 숨긴채 출두를 거부해 왔다。

이들은 또 출두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추행기도 자체의 범의를 부인한가 하면「유엔주재외교관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완전한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의 주재국 관계위원회에 이를 호소하기도했다。그러나 이날 미국무성의 발표는 吳의 면책특권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노만·반즈美北韓 담당 대변인은 유엔에 주재하는 업저버단은 그직무와 관련해서만 면책특권등 기능적 특권을 가질수있고 吳의경우는 분명히 그의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吳가 북한대표부가 주장하는 것과같이 추행기도혐의까지 면책특권을 행사할수없는 것임을 분명히 한것이다。

이것은 결국 吳가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재강조한것이며 이부분은 대변인의 발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오남철

어떻게보면 북한은 板門店식 생떼를 미국을 상대로 벌이다가 조그만 망신만으로 끝낼수도 있을지도 모를 이번 사건을 점점 더 난처한 국면으로까지 몰고갔는지도 모른다。이미 보도된대로 지난 9월5일 吳의 여인추행기도는 인근에 있던 3명의 여인과 2명의 순찰경찰관에게 목격되었다。당시 吳는 다른 5명의 북한대표들과 낚시를 나왔다가 이사건을 저지른 것인데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나온 수사관이 피해여인과 이들 6명을 대질시켰으나 처음에는 吳를 구별해내지 못했다。며칠후 국무성이 수사관에게 제공한 북한대표부 26명의 인물사진을 제시하자 이여인은 선뜻 吳를 골라냈다。

9월22일자로 발급된 구속영장에의하면 吳는 43세중년인 이여인의 가슴을 만지고 땅위에 쓰러뜨리려 했으며 여인이 도망치자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으로되어있다。사건후 吳는 그들의숙소인 뉴욕시東80가40번지에있는 한숙소에서 한발도 밖으로나오지 않으면서 처음에는 혐의자체를 잡아떼는수법을썼다。그러면서 대표부의 대사격 韓時海는 다시 외교관면책특권을내세우며 경찰출두를계속거부했다。이러자 미국측은 즉각 유엔의교체대표인 찰즈·리첸스타인을 통해 추행기도가 외교관의 직무수행이라고 볼수는 없으며 따라서 직무수행에따른 면책특권마저 향유할수 있는경우에 해당되지못한다고 미국의태도를 처음으로 밝혔었다。

문제가 이렇게번지자 韓時海는 면책특권문제를 유엔의 한 위원회에 호소했다。근 1개월여간 이문제가 논의됐지만 워낙 吳의 행동이 파렴치한데다 통상적인 수사마저 계속거부해오고있어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것이다。설사 결론을 내린다해도 총회에 건의하는것으로 끝날뿐이며 미국의 체류문제는 엄연히 미국의 권한에 속하기때문에 유엔의 건의역시 한계가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단계에서 주목한 것은 북한측이 유엔대표부에 새로이 파견될 5명의 외교관에대해 모스크바주재미대사관을 통해 입국비자신청을 하면서 이중 1명이 지난8월 휴전선을넘어 북으로 간것으로 알려져있는 주한미군 조셉·화이트일등병이 부모에게 보내는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넌지시 띄운점이다。사실 吳의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이 吳를 화이트일등병과 교환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날 국무성의답변은 이번 북한의 어줍잖은 행동을 한마디로 일축하는 것이었다。답변 내용을 보면 吳의 사건과 화이트일등병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편지도 다른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전달할수 있으며 화이트일병과 가족과의 접촉문제는 앞으로 板門店과의 정전회담에서 마련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이었다。심지어는「화이트일병은납북이 아니라 자진월북이라는 조사결론을 얻었다」고까지 말함으로써 화이트일병과 관련시키는 북한의어설픈 시도를 외면했다。그러나 새로운 5명의 북한외교관에게 비자발급을 보류하고 있는것은 이런 이유때문만은 아니다。

이날의 답변중 가장 요지라고 할수있는 것은『이번사건에 있어서의 북한측의 비협조적 태도와 도망자의 은닉가능성에 비추어 미국무성은 북한대표부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있으며 이 재검기간에는 비자발급을 할수없다』는 것이었다。

유엔에 대표부를 두는것은 엄연히 북한과 유엔과의 문제지만 미국땅에 발을 디디는것부터 미국의권한이 미치는 부분 즉 비자발급과 비자를 통한 대표부의 규모제한、특정인물의 체류거부、여행제한등 미국내에있어서의 활동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이날의 강경하고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아 미국은 가까운 시일안에 이문제에대한 어떤 양보나 타협을 보일 가능성은 극히 적은것같다。

다만 주목되고 있는것은 북한측이 비자를 신청중인 5명가운데는 대사를 포함한 참사관등 고위외교관급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알려져 북한이 이사건을 계기로 대표부의 일부 교체 내지 보충을 시도하고있지만 쉽사리 실현될것같지않다는점이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뉴욕에 자리잡고있는 유엔건물。옵저버자격으로 이곳에 와있던 북괴대표부는 吳남철의 여인추행미수사건으로 그 기능이 제한받을지도 모를 운명에 놓였다。

메아리

다시「秘密」

『자넨 무슨 비밀이 많은 모양이지?』

그제(8일) 나간「메아리」(「秘密」)를 읽은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컴퓨터의 個人데이터가 프라이버시·人權침해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것은 글쓴 사람의「神經過敏」일뿐이라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는 그 글뜻을 알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그가 그런투로 글을 받아들였을적에는, 8일字「메아리」는 설명부족이었던게틀림없다。그렇다면, 글쓴 뜻을 다시한번 부연해 두는것이 좋겠다。

미국에서 들은 얘기다。

어떤 교포가 몇만달러인가의 융자를 거래은행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신용이 모자란 탓이었다。따져 묻는 교포에게 은행은 몇 분여 설명했다。수입에 비하여 리커·스토어(酒類販賣店) 거래가 너무 많다고…。

컴퓨터의 위력이 이런 것이다。모든 거래가 크레디트·카드와 수표로 이뤄지고, 그것이 일일이 컴퓨터로 기록되는 세상이니까, 거래은행이 마음만 먹는다면, 버는 하나를 놓치지 고객의 금전출납을 낱낱이 알 수가 있다。그것은 마치 남의 가게부를 들여다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데이터가 은행고유의 신용조사에만 쓰이지 않고, 部外로「橫流」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한동안 시끄럽던 實名制가 결국은 주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연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돈있는 사람들이 實名制를 저어 하는 까닭은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만은 아닐줄 안다。돈의 흐름이 드러나는 것, 그 흐름의 추적이 은행업무나 稅務와도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두려움은 그보다 훨씬크다。쉽게 말하면, 본디부터 은행거래의 비밀이 지켜진다는 신뢰가 없었음으로 해서, 모처럼의 實名制에 거부반응이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밀이 보장된다는 安心感은 그래서 요긴하다。더구나 컴퓨터가 많은 個人데이터를 집적하게 될 때, 비밀에 대한 사람들의 不安을 달래는 일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금 범죄증가로 골치를 앓고있는 미국은 그 대책으로 범죄기록을 관리하는 전국적인 컴퓨터網의 구성을 추진중이다。이 면에서 우리 경찰의 수사용 컴퓨터는 퍽 先進的이다。

이 문제를 검토한 미국의회의 技術評價局은 수사 컴퓨터網이 범죄대책으로 유용할 것이나, 수사관 이외의 사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때나 그 내용이 외부에 流布될 때의 위협, 그 기록이 고용관계·면허업무등에 원용될 때의 부작용등을 경고하고 있다。우리나라 수사용컴퓨터를 보며 느끼던 不安感과 마찬가지 지적이다。

꼭 범죄기록이 아니더라도, 컴퓨터의 個人데이터는 微妙한내용을 포함하게마련이므로, 그것이 誤用되었을때의 피해 또한 微妙할 수 밖에 없다。이점에 착안하여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재작년 9월 컴퓨터로 부터의 프라이버시保護조치를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그권고의 골자는①데이터수집의제한(目的外의 수집금지)②이용의 제한(수집目的外의 이용금지)③個人참가(수집대상자의 訂正請求權등)④適正管理(새롭고 정확한 데이터의확보)⑤명확한管理책임(誤用되었을때의 책임明示)등의 몇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권고를 전후하여 OECD의 24개 회원국중 13개국은 이미 프라이버시保護法을 제정했다。그에 따라 독일은 정부기관 컴퓨터를 감시하는 部署를 내무부의 局으로 신설했다。일본도 지금 OECD의 권고를 반영한 법안을 성안중이다。그 결정을 내린 것이 行政管理廳장관시절의 나까소네(中曾根康弘) 현수상이므로 그의 재임중에 새법이 성립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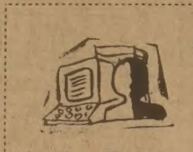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만큼 컴퓨터의 보급이 앞섰다고 해서, 컴퓨터를 덤덤히 바라볼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未來科學소설같은 발상을 빌지 않아도 컴퓨터가 새로운「人權의 敵」일수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여러나라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컴퓨터의 個人데이터處理가 화제에 오른일이 있었다。그때 노르웨이 변호사가 이런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전쟁이 났을경우 컴퓨터의 個人데이터는 禍亂의 원인이 될수가 있다。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관리는 신중해야 한다』자기나라 법무부직원인 그변호사가 염두에 둔것은 소련군의 침공이었는데, 컴퓨터·데이터가 그들수중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화를 입으리란 얘기다。

우리처지에서 컴퓨터를 덤덤히 보지 못할 까닭은 이런데도 있다。

예견되는 문제를 미리미리 봉쇄하는 현명함을 거듭 촉구해 둔다。



金昌悅
<編輯委員>

◇蘇대학생도 루빅큐브 즐겨 소련의 남녀대학생들이 헝가리인가게에서 구입한 루빅큐브를 갖고 놀이를 하고있다。값은 개당5·50루블(美貨약7·50달러)。【모스크바8日UPI연합=聯合】

精管수술 앞다퉈

★印극빈자 집에 電氣놓으려

인도서남부 마하라시트라주 와란와디마을에 사는 극빈자 10명은 집에 전기를 가설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관수술을 받고 그 보상금으로 가설비를 마련했다고 인도의 익스프레스지가 최근 보도。

인도정부관계당국에 따르면 인도인구중 약반수인 3억4천만명의 주민들이 하루에 겨우 2천칼로리 해바라기씨앗의 영양가에 해당하는 1천5백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으며 인도의 50만여개 마을중 대부분은 전기조차없는 실정이라고。

이에 전기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와란와디마을의 한주민은 그 가설비 50달러를 마련하기위해 동료들에게 정관수술을 받도록 권유, 9명의 찬성자를 얻어냈다는것。【뉴델리=UPI】

埃、쥐잡기 大作戰

★곡식피해 年수백만弗

이집트정부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있는 수백만마리의 쥐들을 소탕하기 위해 대대적인 쥐잡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이쥐잡기계획의 西獨측 고문관인 로거·르클러 박사는『쥐들에 의한 그같은 피해액을 5%에서 2%로 낮출경우 이집트는 연간 8백만달러어치의 밀을 절약할수있을 것』이라고 설명。【카이로=UPI】

海外토픽

英男兒 대동맥 破裂된채 태어나 生後 40시간만에 心臟수술

생후 40시간밖에 안된 한 남자신생아가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王立병원 의사들이 8일 밝혔다。

이날 현재 생후 15일이된 고든·번즈는 대동맥이 파열된채 태어났으며 곧 심장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의사들은 즉각 신생아의 체온을 섭씨15도로 낮추어 혈액순환을 정지시킨뒤 14분동안에 정교한 수술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지난 고든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부모의품에 안기게 될것이라면서 생후 이틀도 못된 신생아가 이같은 복잡한 수술을 받은것은 세계 의료사상 처음있는 일인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에딘버러(英)=AP】

第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第5局 第3譜 23~42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奉洙〈청판〉
黑(7段) 盧永夏〈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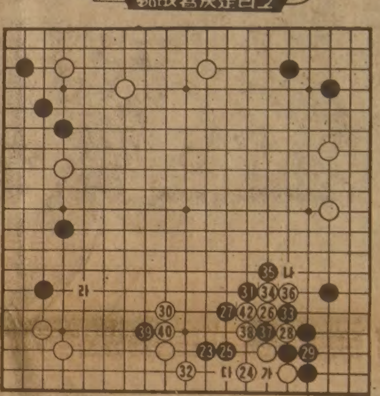
黑23으로「가」에 따어 잡지 않고 강하게 갈라친 수가 좋았다며 徐7단은『당연히 그렇게 둘줄 알았다』고 전적으로 찬동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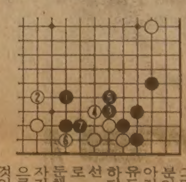
그런데 일단 白24로 최대한 저항해 놓고 黑25를 보더니『이상하잖아?』하고 뜻밖의 표정이다。盧7단도『맞았어, 우둔한 수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黑25는 어쨌거나 참고도와 같이 黑1이하 7이라야 충분했다。도중에 白이 어떻게 변해오더라도 실전에 비하여 결코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양사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다。

상대가「이상」해진 때문에 이쪽은 그만큼 기분이 좋아지고 여유도만만하다。우선 白28로 몰아둔채 자기 30으로 감은 것이「대담한 호착」。

黑、異常한 行馬





黑31에는 白32가 기민했고 黑33에 대한 白34가 예리한 강수。이근처 徐7단은 34자리를 봉쇄하고 白36『黑33은 黑「나」면 白「다」로 건너갈판에 없으므로 이때 黑「라」에 선착하는 설계가 편하면서도 유리했다』는 중론이다。41…28이음。【一八】

第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第5局 第4譜 41~54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奉洙〈청판〉
黑(7段) 盧永夏〈1敗〉

盧7단은 黑41로 이어놓더니 또한번 고개를 설레었다。『이상했어』 없어도 어김없이다。

그제야 白은 42에잇고 黑43을 좋을 한다。보면 여기까지 白이 무리한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않고 머무나 중에 좌하를 白52에선착하여 白우위。뒤집어 말하면 黑은 전체형세에서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어디보다 급한 요충지는 白52의 곳이었다。그리고 黑은 우하귀쪽을 선수로 끝내고 이곳에 선착할수 있었던 만큼 빠저린 失着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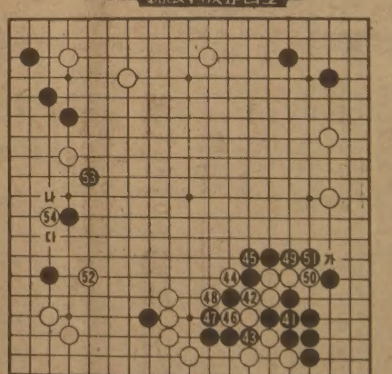
左邊에 新戰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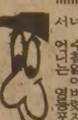
白44로는 직접 49자리로 민다를「가」자리에 뛰어붙이는 수단도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徐7단은 어서 52의 곳을당장의 必爭點으로 보고 白50까지 선수를 한것이다。

盧7단은 예서한 눈으로 좌하를 흘깃거리며 입맛을 다시더니『아무래도 한바탕 싸울밖에 없는걸』하고 黑53。

직접적인 득기는 무엇이든간에 黑이 최강의 수단을 들고나온 이상 엄청해보이던 좌변일대가 갑자기 싸움터로 변할밖에 없다。

徐7단이라 해서 적의도전을 피할리가 없다。당장 白54로 붙여 들어서 닭같은 역습을 단행했다。자 黑은 좌우간 젖혀야하는데「나」와「다」어느쪽을 젖히는 것이 최선일까。【一八】





구독신청은 533-2361

민중의 지팡이

얼마전 일이다。장항선열차를 타고 영등포역에서 내렸다。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있는 수첩을 꺼내들고 인천에 살고있는 언니에게 역광장에서 전화를 걸었다。서울에 볼일을 마친 다음날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위해 수첩을 찾았으나 있어야할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전날 역광장 공중전화 박스속에 놓아 두고온 것이다。

시골에 내려갈 예매한 차표와 5천원권 3장 뿐이었으나 여비와 잃어버렸으니 큰 걱정이었다。전화번호의 기억을 더듬어 인천 언니에게 전화를 또 걸었다。『언니나야』『응、승미 엄마냐』『수첩을 잃어버렸지』하면서 언니는 영등포역파출소에 가 보라고했다。

파출소、나에겐 생소한 낱말이었다。먼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선 나에게 순경은『충남 서천에 사시는 승미엄마、감기현씨입니까?』물었다。까만 비닐수첩을 내놓았다。

『확인하십시오。하행열차시간이 임박하니 빨리 가셔야겠읍니다』하고 재촉하는 바람에 변변히 인사도 못하고 황망히 파출소를 나와 버렸다。고마운 마음을 나는 표시도 못하고 그냥 온 것이 못내 아쉽고 죄스럽다。이렇게 무사히 귀가할수 있었던 것은 작은 일에도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를 때문이었는데…。

【감기현·충남서천군서천읍군사리2구】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89>

부드러운 겨울 ⑮

그럼 이 아이도 알고있었단말인가。『엄마가 죽어가고있단다』는 것을。가엾은것。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소년을 안았다。그리고 소년의 두근대는 가슴을 손톱으로느꼈다。작은 거인답지않게 소년의 심장은 콩닥에 할딱이고 있었다。

소년이 수지를 밀쳤다。수지는 무색해진 손을 부비며 말했다。

『엄마는 얼마를 더살아야 해? 아빠를 더좋아해?』

『전는 영남이가 아녜요』

『영남이가 아니라니、영남이가 누군데?』

『우리집 맨 꼬마요』

소년이 우뚝 일어서면서 수지를 빤히 바라다보았다。적의(敵意)까지는 안가더라도 소년의 눈엔 차갑게 번득였다。수지는 속에、아니 심장에 얼음조각이 와닿는것처럼 선뜻해서 팔짱을 끼면서 몸을움츠렸다。

『왜 어느새 가려고? 우리 아이들이 타잔답 다녀갔다면 굉장히 섭섭해할텐데…』

소년은 그 말엔 대꾸하지 않고 제 할말만 했다。

『그럼 아주머니만 믿고가 다리겠어요。꼭 되도록 힘써주세요』

미리 연습했는지、어른이 시켰는지 어린애답지않은 노숙한 말씨가 수지 귀에 거슬렸다。소년은 몸을 날려 곧장 걸어나갔다。수지는 뒤늦게 소년과 자기 자식을 한시탑에 얹히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소년을 불러세우진 못했다。소년은 노인처럼 어깨를 구부정하니 처뜨리고、그러나 날렌 걸음으로 참나무 밑을 지나쳐 대문밖으로 사라져갔다。

수지는 소년이 참나무를 한번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간게 서운해서 한참동안이나 소년이 사라진 대문밖을 바라보고 서있었다。

그리고 가슴속이 텅 빈것처럼 허전한 마음으로 생각했다。그 아이는 알까? 이 세상이 숨겨놓은 추악한 모순을、운명의 악랄한 장난을。

미리 어른이 돼버린양 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아는 얼굴을 하고있대도 그것만은 모르리란 짐작이 소년에 대한 연민을 한층 애닯게했다。

소년이 그런 것들을 막연히 두려워하며 할딱이던 가슴과 소년의 어깨에 얹으로실린 고난의 무게를 생각하며 수지는 뼈가 저렸다。

지금이라도 소년에게 친아비를 찾아줄까? 인재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유기사보단 낫게 살고있을게 아닌가? 감히 그 일을 할수있는 사람은 자기 밖에 없을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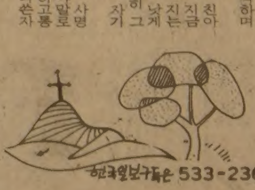
그러나 수지의 이런 사명감은 곧、그런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자기다운 천박하고 통속적인 것일까하는 쓰디쓴 자기혐오로 변했다。

오목이는 말했었다。

『나는 저 아이를 얻기위해 열달동안 뱃속에 넣고 고생했지만、우리 그이는 저 아이를 얻기위해 꼬박 십년동안이나 저 아이를 마음속에 넣고 힘겹게 부대꼈어요。십년동안이나…。』

모든 남자가 순간의 쾌락으로 얻을수있는 자식을 유기사는 자그마치 십년동안의 고통스러운 자기극복에 얻었다。자그마치 십년동안이나……。

그걸 누가 빼앗을수있을것인가。수지는 감히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할수있었다는 것조차 싫고 두려웠다。마치자기속에 숨겨놓은 일관성의 간지(奸智)를 보는 것처럼 섬뜩하기조차했다。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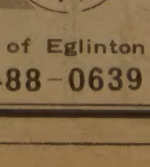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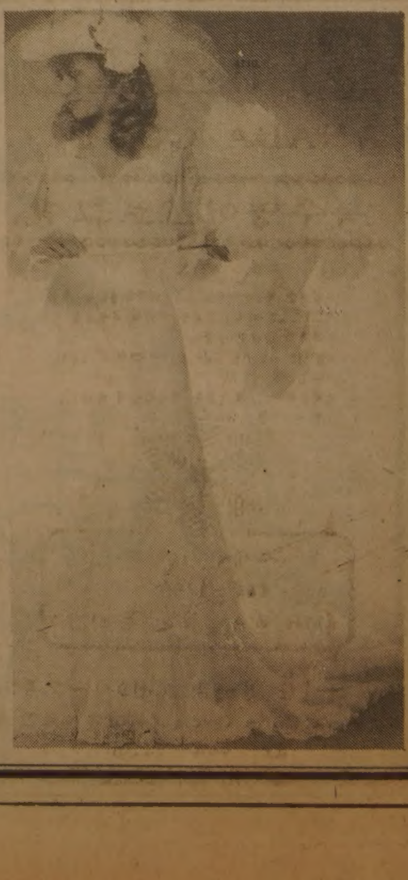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운전자 억울한被害 많다

市民·交通순시원 "錯誤고발" 늘어
潔白입증 못할경우 一方的 누명

시간·돈낭비 커 대부분 罰金감수

교통종합 민원신고 센터의 체계미비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무질서한 운전관행을 바로잡기위해 교통경찰관외에 교통순시원을 두고있고 일반시민들에게도 고발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이들의「착오」로 엉뚱한 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의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잦고 이경우 무고함을 입증해내려면 시간과돈의 낭비가 이만저만 드는게 아니다.

이에대해 한번 피해를당한 운전자들은 경찰이 사고를막기위해 보조기구를 두는것은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확하게 운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가장 심한 경우는 교통종합민원신고 센터로 일반시민이 전화 또는 엽서신고로 교통법규위반차량을 고발하면서 생기는 착오가 많다는사실이다.

치안본부는 81년5월2일부터 서울, 부산을비롯한 전국6대도시에 이같은 센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시민이일단 고발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이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냐를 판가름, 해당 경찰서와 시로 각각 통보한다.

센터의 통보를받은 경찰서는 무조건 출석요구서를 발부, 고발받은 운전자를 소환하게되는데 일단 피신고인이 고발사항을 시인하면 즉석에서 스티커를 발부하지만 부인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을신청하거나 자신이 법규위반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한다.

또 부인하더라도 고발시민이 틀림없다고 재차 진술하면 고발인의 고발내용대로 일방적인 처벌을 받을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교통순시원에의한 적발때도 착오시비가 심심치 않다.

서울4하5812호 개인택시 운전사 孔完秀씨(58·서울龍山區梨泰院洞74의43)는 지난10월21일 서울시로부터 타인에게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로 30일간의 차량운행 정지처분을 받았다.

전혀 그런사실이없는 孔씨는 서울시에 문의한결과 永登浦경찰서소속 교통순시원 李모씨(44)가 지난7월5일 상오10시께 한일은행永登浦지점앞길에서 자신의 차를 崔모여인(31·서울江東區豊室1洞)이 운전하는것을 적발함에따라 차주에게 통보된 것임을 알아냈다.

孔씨자신이 「착오」라고주장했지만 경찰은 崔여인을데려와 대질하기전에는 인정할수없다고 묵살해 孔씨는 崔여인의 주소지·개인택시조합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한끝에 9일만에 찾아냈다. 문제의 택시는 李모씨(42·龍山區龍山洞)의 서울4하5810호였는데 순시원李씨가 교통법칙행위적발 보고서에 「5810」을「5812」로잘못기록해사단이났던것임이밝혀져운행정지집행하루전에야 가까스로 결백을 증명할수있었다.

孔씨는 자신의 잘못이없음을 입증하기위해 2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가며 자신의 택시넘버와 비슷한 서울4「파」5812、서울4「다」5812、서울4하58「21」등 수많은 택시운전자들을찾아다녀고 경찰서만도 6~7회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오너드라이버인 회사원 河모씨(41)도 지난8월 중순 城北경찰서로부터 자신의 승용차 서울1마6922호가 三仙橋앞에서신호위반을했다는이유로출석요구서를받았는데확인한결과 자신의승용차는 「자주색브리사」인데 「검정색포니」로 잘못기재돼 있는데다 위반날짜도 휴가로 釜山에있던날이어서 자신과는 전혀무관한적발보고서였지만 이를입증하는라애를먹었다.

서울3마7006호포니승용차주인 鄭모씨(40·회사원)도 지난20일 淸凉里경찰서로부터 5일전 淸凉里로터리 부근에서 지시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서를받고 경찰서에나가보니녹색코르티나승차종이 녹색코르티나로 잘못 기재돼있었다는것.

이렇게 잘못 적발된 운전자중 처벌이 가벼운경우는적발사실을 아예 시인하고 벌금을 내는 사례도많다.

무죄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검사증사본, 차량 사진등을 제출해야되고 그래도 안되면 증인등을 찾아 정식재판을청구해야하는데 이경우 시간과 경비가 벌금보다 엄청나게들기때문이다.

이같은 착오는 대개운전사를 직접적발하는 경우보다 운전사가 모르는사이에 적발됐거나 신고되는때 많이 일어나는데 경찰관계자들도 멀어져가는 차량의 번호나 색깔·차종등을기록하면서 흔히 착오가 일어날수 있음을 시인하고있다.

심한경우 단속자들은 번호가 하나쯤 불명확할때 0번부터 9번까지의 해당번호차량 10대에 모두출두요구서를 내기도해 억울한피해자는 늘어나기만한다. 【金宗來기자】

작업복에 外製 상표

한벌2만5천원 製造업자구속·商人입건

【釜山】부산지검 특수부는 9일 국산의류에 가짜 라벨을 붙여 외국유명상품처럼 팔아온 의류제조업자 朴鍾澤씨(40·서울中區會賢洞1街38의1)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상인 鄭榮鎬씨(46·부산시西區美蓉2洞89)를 입건하는한편 가짜 외제작업복 37벌과 던힐 진내쇼날등 가짜상표6종,5만여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따르면 朴씨는 지난7월 부산시東區凡一洞1319번지에 의류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미싱5대와 종업원 7명을 고용한후 서울 평화시장과 동아시장등에서 외국유명회사의 가짜상표 6만여장을 구입, 국산 작업복과 점퍼등에 붙인후 부산국제시장 수입상품상가 주인 鄭씨와 서면일대의 양품점등 4곳에 한벌당 2만5천원씩에 팔아넘긴 혐의다.【聯】

어음·수표2억不渡 왕자정밀會長 영장

【全州】全州경찰서는 9일 2억여원의 부도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한 왕자정밀회장 양경섭씨 (59·全州市德津洞1街1403)를 부정수표 단속법위반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聯】

矯導所에 公衆보건醫배치

醫師難 심한곳 내년에 百명

정부는 구속수감자들에 대한 의료시혜를확대하고 해마다 증가될것으로보이는 공중보건醫 인력을 활용하기위해 내년부터 전국 [illegible]개 구치소·교도소중 의사난이 심각한곳부터 공중보건의를 우선배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보사·법무·국방부등 관련 부처끼리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는한편 현재 공중보건의의 역할을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진료로 한정한「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중 일부조항을 개정키로했는데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빠르면 내년7·8월께 1백명 (법무부가 보사부에 요청한 숫자) 정도를 1차로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교도소등 교정시설은 규모가클경우 의사·의사보조원등 3~5명, 작은곳은 의사1명만이 근무하는곳이많아 재소자 진료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지난 79년부터 의대졸업생가운데 군의관요원으로 차출돼 일정기간 군훈련을거친뒤 곧바로 예비역에 편입,농어촌지역의 보건소및 보건지소에서 군복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3년동안 활동하게돼있는「무의촌의사」로 현재 9백80여명이 근무하고있다.

億臺사취 落札契主 검거 釜山

【釜山】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계돈 1억4천여만원을 사취한 李英子씨(49·여·南區大淵6洞176의1)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李여인은 南區大淵시장 여자상인들을 상대로 지난 80년3월16일부터 금년 2월5일까지 5~6백만원짜리 낙찰계 22개를 조직, 계원몰래 계돈을 낙찰시키는 방법으로 김관수여인(60)의 돈 2백94만원을 비롯, 48명의 계돈 1억4천2백70만원을 사취한뒤 서울로 달아났다가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聯】

貴金屬 밀수 美國人 검거

치안본부외사수사대는 9일 미국인 윌리엄·폴·오카나씨(33·미국하와이주 호놀룰루시거주)를 관세법위반혐의로검거,金浦세관에 이첩했다.

경찰에 의하면 윌리엄씨는 8일하오 4시30분 KAL편으로 일제안경테2백34개, 1·5캐럿트 다이어반지등 귀금속 약3천만원어치를 숨겨들여오다 적발됐다는것.

윌리엄씨는 지난 8월25일 미재무성에서 보석 장물관매혐의자로 각국공항에도 수배된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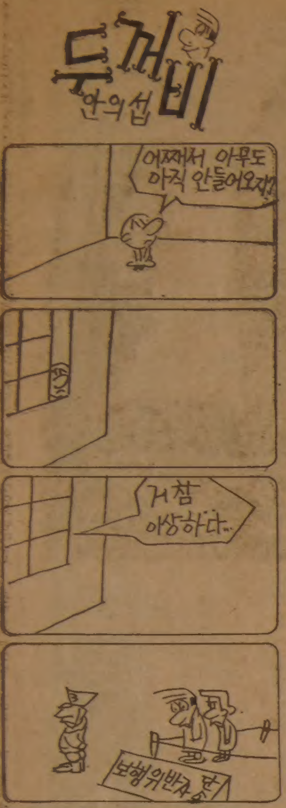
2살 어린이 대야에 溺死

【釜山】8일 하오1시께 부산시東萊區鳴藏洞69의18 朴基順씨(26) 집에서 朴씨가 잠든사이 朴씨의 아들 최승대군(2)이 발판터 아래의 연탄불위에 엎어논지름30㎝, 깊이20㎝의 대야로 떨어져 숨졌다.【聯】

商品트럭 상습절도 12회걸쳐 1억상당

【金泉】경북 金泉경찰서는 9일 徐永業씨(30·전북淳昌郡柳等面柳村里135)崔贊變씨(28·釜山市西區草場洞3街116)등 2명을 특수절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일 새벽1시께 부산시東萊區福泉洞229 앞길에서 삼양라면 5백98만여원어치가 실려있는 2·5톤트럭(운전사 김문환·48)을 훔쳐 서울로 가다 붙잡힌것을 비롯, 12차례에 걸쳐 상품이 실린 트럭(싯가 1억원)을 훔친혐의이다.【聯】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82
H245-3539

◇"딸랑딸랑"…歲暮자선남비 등장. 또 한해가 저물어감을 알리는 구세군 자선남비가 오늘부터 전국 47개소의 길거리에 등장한다. 금년도 모금목표액은 24일까지 보름동안 1억원. 구세군 대한본영 직원들은 9일 자선남비를 점검하며 올해도 불우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정으로 자선남비의 배가 불룩해지길 기원했다.

春川 地下살롱에 疑問의 불

女종업원 3명燒死

【春川】9일상오9시께 春川市退溪洞392의32 백마지하살롱(주인 이상화·29)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주방에서 잠자던 종업원 신현숙(23)、나경애(22)、정수현양(22)등 3명이 숨지고 살롱내부를 모두 태운후 15분만에 꺼졌다.

이날 불을 처음본 종업원 황윤화양(28)에따르면 밤늦게 영업이 끝나 동료 4명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 목이 말라 주방밖으로 나와보니 2번룸에서 불길이 올라『불이야』하고 소리치자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닫힌 셔터문을 열어주어 간신히 빠져나왔다는것.【聯】

含量 95%넘어야 과채류名稱 허용

7월부터

토마토 주스등 각종 과채류 음료가 내년7월1일부터 과즙의 성분함량 정도에따라 그명칭이 달라진다.

보사부는 9일 시판중인 각종 주스류의 과즙성분함량이 현재 5~1백%까지 다양한것을 정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품질향상을 꾀하기위해 과즙이 95%이상 함유된것만을 천연과즙 또는 주스명칭을 사용토록하는등 과채류 음료 제조기준을 새로 만들어 품질표시 광고등에 이를 그대로 적용토록했다.

현재 국내과실음료는 청량음료또는 과즙음료로 허가받아 일정한 기준없이 임의로 품질표시를 해왔는데 허가현황을보면 밀감10~1백%함유가 23개、사과 10~50%함유가 9개등 모두46개 품목이다.

이번에 고시된 과채류음료의 성분배합기준은 다음과같다.

▲천연과즙=과즙95%이상▲과즙음료및혼합과즙음료=과즙50%이상95%미만▲희석과즙음료=과즙10%이상50%미만▲과육음료및혼합과육음료=과육20%이상▲과립과즙음료=과립5%이상과실분15%이상으로 과립함유율 30%이하▲천연채소즙=채소즙95%이상▲채소음료및혼합채소음료=채소즙50%이상95%미만▲희석채소음료=채소즙10%이상50%미만▲토마토주스=무염가용성고형분4%이상▲토마토혼합주스=무염가용성고형분4·5%이상▲토마토과즙음료=불용성고형분0·5%이상

單協직원 목매자살

監査서 지적당한후 고민

【光州】9일새벽2시께 전남咸平郡大洞面 大洞단협숙직실에서 동조합 대부담당직원 崔相日씨(29·咸平郡羅山面松岩里717)가 동료 직원 김모씨(32)와 함께 숙직을하던중 김씨가 잠자리에 든후 나일론 끈을 문설주에 매달아 목을매어 숨진채로 발견됐다.

단협측에 따르면 숨진 崔씨는 지난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도지회 정기감사에서 자신이 맡고있던 업무가운데 조합원 조모씨(45)등 10명에게 대출해준 4백만원에대한 대출금 증서가 없어 감사반으로부터 지적당한뒤 고민해왔다는 것이다.【聯】

金城에 국민休養地

義城郡 1억원들여

【義城】경북 義城郡은 내년3월 국비 1억4천만원을들여 金城面開日洞 일대를국민휴양지로 개발키로 했다.

9일 郡에 따르면 현재 開日洞 국도변에서 나오는 알칼리성과 칼슘분의 지하수를 이용, 이곳을 통과하는 각종 차량의 운전사및 관광객들을 위해 30평규모의 샤워장 1채와 휴게소1개소,대형버스 20대가 주차할수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변 조경사업도펴 내년5월 완공한다는것.【聯】

制憲의원 崔錫和옹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崔錫和 옹(사진)이 9일 상오1시 서울道峰區雙門洞390의10 자택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71세. 발인은11일상오10시, 장지는 경기 平澤郡浦升面 石井里 선영연락처 ☎993-2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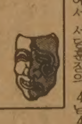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포장마차 女社長」

서울 方背洞「곰보집」 金美順씨

"보람갖고 일하니 소원성취…"



곰장어를 굽는 구수한 냄새가 7평 포장마차안에 가득하다. 익숙한 손놀림속에 낙지볶음 한접시가 순식간에 요리돼 오르고 얼큰한 손님들이 노래가락을 한곡조씩 뽑는다.

곰보아줌마 金美順씨(43·사진·江南區方背洞766의6)는 이포장마차「곰보집」의 여주인.

江南區 方背洞 삼호아파트 뒤편에 7년째 터를 잡고있는 그녀는 이제 「곰보레스토랑」이라 부를만큼 성공도 했고 내노라하는 사모님도 부럽지가 않다.

충남扶餘에서 서당훈장의 4남4녀중 세째딸로 태어났던 그녀는 부모가 중풍으로 몸져 누운후 14살에 상경, 식모살이를 시작했다.

그녀가 일한곳은 당시 모고관댁. 인심좋은 그집에서 3년을 일하며 웬만큼 돈도모아 고향의 부모와 세동생도 불러 올렸다.

버스안내양생활을 5년쯤했고 22살에는 운전을배워 그고관댁의 사모님 운전사로 7년동안 핸들을 잡았다. 터전을 잡는가싶었는데 교통사고를냈고 작은 플래스틱공장을하던 남편도 사기를당해 집안이 풍지박산돼 버렸다. 다리밑에 움막을짓고 눈물의 이사를했으나 그것도 홍수가져 날려보냈다. 수면제 40알을 집어삼키느냐, 참느냐 버티면서 일주일을 누워있었다. 인정많은 이웃주민들의 도움으로 30만원을 들여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말하자면 재기를 한것이다.

포장마차를 장만한지 3개월만에 당시 건설부 장관이던 K씨가 참새구이를 먹고 가기도하는등 정계·연예계인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유명인」이 돼가고 있었다. 한참 손님이 붐빌때는 포장마차앞에 고급승용차가 즐비하다는데 비결을물으니 「보람을 갖고 일하면 소원성취한다」는 대답.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永登浦시장에서 물건을 떼오면 낮12시、3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남편과함께 장사준비를한다.

요즘 서울大에 다니는 큰 아들이 高試공부를 하느라 전처럼 밤에 나와 설겆이를 도와주지 못해 조금더 피곤하지만 서울에서 제일잘된다는 포장마차집 사장 아줌마는 앞으로 자신의 수기를 써낼 생각이라며 더 바라는 것이없었다. 守分이자 滿分이렸다. 【韓基泰기자】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미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교실.
- 기초반·중급반·상급반
- 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ZENITH HI-TECH
BETA VIDEO RECORDER
SPECIAL OFFER!

VR9760W • Clear Special Effects Playback
• Dependable electronic tuning with 14-position channel selection
• Programmable 14-day, 4-event auto record timer
• Remote Video Action Control with Slow Motion
• Superb Beta picture quality with CLEAR playback
• Picture Speed Search in forward and reverse
• Audio Dub and more!

● ZENITH T.V VIDEO 염가판매
● T.V VIDEO STEREO & RADIO 수리합니다.

Town and Country
882 KINGSTON ROAD ☎691-2000
SALES & SERVICE 김 광래

불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 ~6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R)

100m서 10秒2가 고비
스타트 빠르면 脫아시아

「金메달코치」가 診斷하는 金메달리스트

潛在力은…

육상 張在根

올림픽優勝은 힘들어도 入賞기대

◇張在根의 힘찬대시 스타트를 개선하고 스피드를 늘리면 세계무대로 도약할수 있다고 朴承培코치는 말하고 있다.

한국육상 단거리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2백m서 우승한 張在根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대표적인 선수다. 朴承培코치의 과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개발,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해 대시하느냐는 것이다. 張在根은 미완의 대기. 그릇을 다듬고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명장의 두뇌와 선수의 재질이 한데 융화되어야 한다.

朴承培코치가 짊어진 짐은 張在根을 세계무대에 내놓을수있는 걸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시련이다. 이 시련은 선수와 코치가 함께 뛰어넘어야할 긴 터널이다.

『張在根이 앞으로 세계무대로 뛰려면 현재의 수준에서 한단계 뛰어넘어야 한다』고 朴코치는 말하고있다. 기술적으로는 고질적인 취약점인 스타트를 개선해야만 아시아무대서 탈출할수있는 길이 트인다.

『앞으로 스타트개선에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 張이 스타트만 빠르면 아시아·존을 넘어설수있는 단거리의 강자가 될수있다』(朴承培코치)

張在根의 후반 대시는 누구도 추격할 수 없다는것이 이번 뉴델리 아시안 게임서 입증되었다. 朴코치는 張이 스타트만 재대로하면 1백m서도 자신의 최고기록인 10초4를 늘 유지할수 있고 2백m서는 20초60~70대를 기록할수 있었을 것이다. 2백m서 20초50대를 넘어서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서 예선을 통과할수 있으리란것이 코치의 전망이다. 올림픽 최고기록은 미국의 토미·스미드가 갖고있는 19초83. 최소한 20초벽을 넘어서야 입상 가능성을 기대할 수있다. 기록단축의 가능성에서는 1백m가 훨씬 유리하다는것이 朴코치의 전망이다. 만일 張이 스타트만 빨리하면 1백m서 0·1~0·2초를 쉽게 단축할수 있다. 10초2대만 항상 유지하면 84년 올림픽서 우승은 바라기 힘들지만 한번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어볼수 있다.

동양선수들이 신체적 여건이 뛰어난 서구선수들과 단거리서 대결한다는것은 토끼와거북이의 싸움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朴承培코치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서 張在根을 1백m와 2백m서 예선을 통과시켜보겠다고 야심적인 계획을 세우고있다. 80년 멕시코 유니버시아드서 張在根은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난 선수들과 대결, 2위를 차지한 경력을 갖고있다. 스피드에서는 외국선수들에 결코뒤지지 않고있다.

『앞으로 스피드를 조금늘리고 스타트만 개선하면 張在根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수 있다』는것이 朴코치의 진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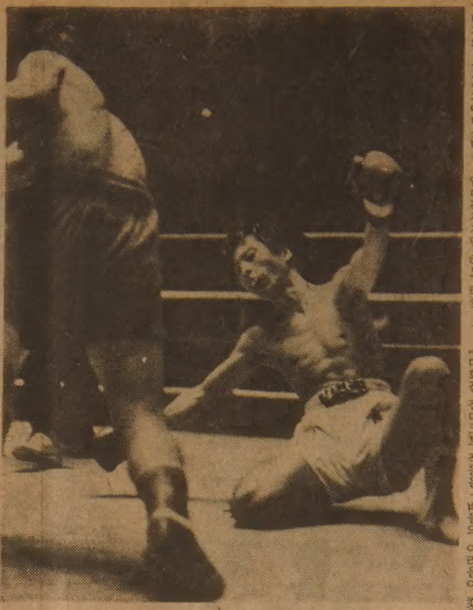
成均館大 3학년으로 20세라는 점은 나이가 張의 앞날을 한층 밝게해주고 있다. 또한 뛰어난 소질과함께 매사에 성실하다.

『張在根은 평소 노래도잘하고 성격이 명랑하다. 또한 코치의 지시를 잘 받아들여 소화할줄 안다. 코치와 의견이 다르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줄도안다』고 朴코치는 평하고있다. 훌륭한 코치는 제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꿰뚫어볼수있는 혜안을 갖고있어야한다. 때로는 코치는 선수를 진단할수있는 훌륭한 의사도 되어야 한다. 朴承培코치는 張在根이 다른의견을 제시하면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시켜 張在根의 몸에 알맞는 새로운 처방을 내린다.

2백m 우승은 張在根과 朴承培코치의 합작품이라고 할수있다. 朴코치가 張의 앞날에 대해 큰 기대를 거는것은 코치와 선수가 항상 같은 호흡을 하고있다는 점이다. 코치는 선수의 노력 이상으로 코치가 노력을 해야한다고 朴코치는 강조하며 張在根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閔炳宅기자】

◇기록 대비표

	100m	200m
張在根	10초4	20초89
세계 기록	9초95 (하인즈·미국)	19초72 (메네아·이탈리)
올림픽기록	9초95 (하인즈·미국)	19초83 (스미드·미국)
아시아기록	10초F (라타나폴·태국)	20초6 (도요다·일본)



◇친者와 쓰러진者 주니어·밴텀급 2차전서 徐丙準이 金浩鉉의 강타를 맞고 쓰러져 KO되는순간。

사흘째도 KO펀치 11개續出
柳寶錫·宋和永(웰터)등 準準決에
프로복싱 新人王 선발전

82년도 프로복싱 전국신인왕선발전 사흘째경기가 9일 문화체육관서 속행, 주니어·라이트급, 라이트급, 주니어·웰터급, 웰터급, 밴텀급1회전과 주니어·밴텀, 밴텀급2회전36게임에서 11개의 KO승부가 속출했다.

이날 웰터급서 柳寶錫(웃멘)은 金永植(고려)에게 3회40초KO勝을 거두고 준준결승에진출했다. 柳寶錫은 첫라운드부터 왼손 스트레이트로 게임의 주도권을 잡은 편 뒤 2라운드들어 다양한 펀치를 퍼부어 3라운드초반원투스트레이트 결정타로 KO승을 거두었다.

같은 급의 宋和永(덕흥)은 1라운드에 라이트더블펀치로 安炳洙(우성)를 다운시킨뒤 2라운드들어 초반부터 소나기펀치를 퍼붓다가 라이트훅을 턱에 명중시켜 2라운드 1분40초만에 통렬한 KO승을 거두었다.

주니어·밴텀급 2회전서는 첫날李基鍚을 KO로 물리쳤던 盧建鎬(극동중앙)가 펀치력을 살려 李基鎬(준호)에 판정승을거두고 8強이겨루는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같은급의 金浩鉉(영등포)은 徐丙準(봉화)과 2라운드까지 범전범개하다가 3라운드1분20초에라이트훅으로 KO승했다.

주니어·밴텀급의 金熙鳳(주승)은 李海淵(웰진)을 맞아 좌우훅등 다양한 펀치로 공격, 3라운드45초에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마무리하고 KO승했다.

◇제3일KO전적

▲주니어·라이트급1회전
鄭洪燮 2회KO 朴基哲
金正煥 3회KO 金德煥
高永國 1회KO 俞喜在
▲동라이트급
林重默 1회KO 金鎬英
申興植 2회KO 李光炯
▲동주니어·웰터급
黃琅夏 1회KO 朴炳弼
▲동웰터급
宋和永 2회KO 安炳洙
柳寶錫 3회KO 金永植
▲주니어·밴텀급2회전
金浩鉉 3회KO 徐丙準
金熙鳳 3회KO 李海淵

女실업농구 드래프트
12개팀서 5명씩뽑아
廉美淑 託銀, 尹景珠 第一銀에

금년도 여자실업농구 드래프트선발이 9일 國民銀行대강당서 취업희망자 85명을대상으로 실시돼 12개여자실업팀은 5명씩 60명을 선발, 취업률 70.6%를 나타냈다.

이날 선수선발순위추첨에서 商業銀行이 1번을 뽑고, 연고권을 갖지않은 서울信託銀行은 10번, 第一銀行은 11번, 信用保證基金은 12번을 뽑았다.

연고선수를 뺀 일반선수지명권 1위를잡은 서울信託은 廉美淑(1m70)을, 第一銀行은 成德女商의 포워드 尹景珠(1m79)、保證基金은 誠信女高포워드 具貞會를 각각 뽑았다.

◇추첨명단

▲상업은행=林海淑(동주) 龍美淑(숭의) 文秀鄕(은광) 金熙順(효성) 金美淑(동주) ▲동방생명=文敬子(수원) 金日順(송원) 趙대경(선덕) 李仁順(선일) 姜順德(수원) ▲외환은행=魏明順(선일) 邊加善(숙명) 金愛慶(대전) 李美香(선일) 金和鎭(성신) ▲한국화장품=李亨淑(수피아) 金南姬(수피아) 金明善(청주) 申金心(전북체) 俞淑伊(숙명) ▲선경=李金眞(상명) 文惠珠(숭의) 徐花淑(옥천) 朴順愛(대전) 李鍾順(수원) ▲코오롱=金玉姬(상명) 朴順玉(덕성) 朴香淑(송원) 洪庚順(수피아) 李明順(효성) ▲국민은행=朴正淑(삼천포) 申起花(은광) 金順伊(삼천포) 徐仁淑(선덕) 李明姬(전북체) ▲태평양화학=任三淑(송원) 李榮蘭 吳仁淑(덕성) 趙終禮(대전) 朴泰順(송원) ▲조흥은행=李在媛(신광) 朴順英(수원) 金成愛(숙명) 金甲順(은광) 姜美京(신광) ▲신탁은행=廉美淑(은광) 徐元玉(덕성) 金喜永(해성) 權英喜(효성) 李賢淑(전북체) ▲제일은행=尹景珠(성덕) 金元淑(동주) 金貞愛(덕성) 朴軟熙(덕성) 崔美愛 ▲보증기금=具貞會(성신) 申美玉(동주) 鄭海任(전북체) 薛仁珠(신광) 李桂淑(상명)

“權威프로테니스 서울開催 추진”
3年前 라켓하나만 들고 떠났던 「집시」 李德姬가 母國에 들렀다

테니스·집시 李德姬(30)가 아시안게임 熱氣가 한창일때 소리없이 서울에왔다. 『권위있는 세계프로테니스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해보려고 왔어요』 금년 한해동안 27개의 각종대회를 분주하게 쫓아다닌끝에 세계랭킹 32위까지 뛰어오른 李德姬는 1년전에 귀국했을 때보다 한결 건강하고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연습친구 나브라틸로바·에버트·예거등 招請 응할듯”
온갖 苦生끝에 「世界32위」로…美플로리다에 아파트도

아직 상금등 최종적인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이 잘 진행되어 내년 9~11월중에는 한국팬들도 들으면 알만한 상위랭커 16명이 서울에서 경기를 치를수 있을 것 같다고.

79년 여름 라킷하나만을 들고 미지의 프로세계에 나섰던 李德姬는 3년여의 고생끝에 이제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지난한해 받은 상금만도 10만달러. 테니스 스타들의 본거지인 미국 남부 휴양지플로리다의 보이타스·스프링스에 아파트1채를 구입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라킷, 신발등 장비를 사서써야했지만 이제 메이커들이무료로제공하고있다.

78년 방콕대회에서 여자단·복식의 2관왕을 차지했던 李德姬는 뉴델리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후배들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대회전 잔디코트 적응을 위해 전지훈련을 했던것이 좋았던것 같아요. 누가 잔디에서 더 많이 뛰어보았느냐에 따라 승부가 나는거죠』

李德姬는 프로대회가 클레이, 케미컬, 잔디코트등 구분없이 열리는바람에 초반에 굉장히 애를 먹었었다며 후배들의 어려움이 컸을것이라고 말했다.

『테니스에서는 프로없이 아마추어의 발전을 바라기는 어려워요. 국내에서 프로대회를 자주열고 경험을 쌓도록 하는것이 후진양성을위해 좋은 방법이에요』

일본의 많은 우수선수가 프로로 전향해 한국이 쉽게 이길수 있었지만 여자단식서 金壽玉을 꺾은 이노우에, 오까모도등 신진선수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위해서는 한국도 테니스저변확대에 힘써야 할때라고 지적했다.

지금 WTA(세계여자테니스협회)에서 인정하는 국제프로대회가 60개 있는데 그중 일본서 3, 홍콩서 1개 대회가 열리고 자유중국, 필리핀, 태국등도 대회개최를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李德姬는 나브라틸로바, 에버트, 예거등 유명선수들이 모두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어서 한국에 초청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폰서도없이 프로에 뛰어들어 한동안은 선수대기실에서 햄버거와 콜라를마시며끼니를 때우는등 처량한집시의 고행을했던李德姬는이제상위랭커로서변모된모습이었다.

휴양지 플로리다는 캘리포니아와함께 굴라공, 웨이드, 에버트, 예거등 많은 일류선수들이모여 훈련하는본거지. 여기서 테니스코트 관리를 맡고있는 李德姬는 바브·존씨등 코치3명으로부터 하루3시간의 레슨을받으며 대회때는 코치들이 번갈아가며 1명씩동행한다.

李德姬에게는 세계랭킹 56위에서 30위까지뛰어오른 82년이 특히 뜻깊은 해다.

지난1월의 에이븐·퍼처스 대회우승과 5월 서독오픈서 노장 빌리진·킹을꺾었던일, US클레이코트대회서준결승까지올랐던일들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체력의한계라는 말은 게으른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李德姬는 나이가 30이지만 다부진 의욕을 보인다.

마땅한 후배가있으면 프로로 이끌어보겠다고 희망을말하는 李德姬는 결혼얘기에는 웃기만할뿐 꼬리를 감춘다.

오는14일 출국 예정이다. 【金榮根기자】

◇아시안게임서 金메달4개를 차지한 후배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테니스·집시 李德姬。

한국, 헝가리에도 져
세계 女子핸드볼, 31대25로

【부다페스트=聯合】 한국은 9일상오2시(한국시간) 부다페스트 스포츠홀에서 열린 제8회 세계여자 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리그 2차전에서 홈팀 헝가리에 25-31로 참패, 3패를 기록했다.

한편 蘇聯은 이날 유고를 21-19로 제압, 3연승으로 우승고지에 한발 다가섰고 東獨은 체코에 23-18로 낙승, 첫승리를 올렸다.

한국은 11일상오 東獨과 대결한다.

◇2차전 전적

헝가리 (2승1무) 31-25 한국 (3패)
소련 (3승) 21-19 유고 (2승1패)
동독 (1승1무1패) 23-18 체코 (3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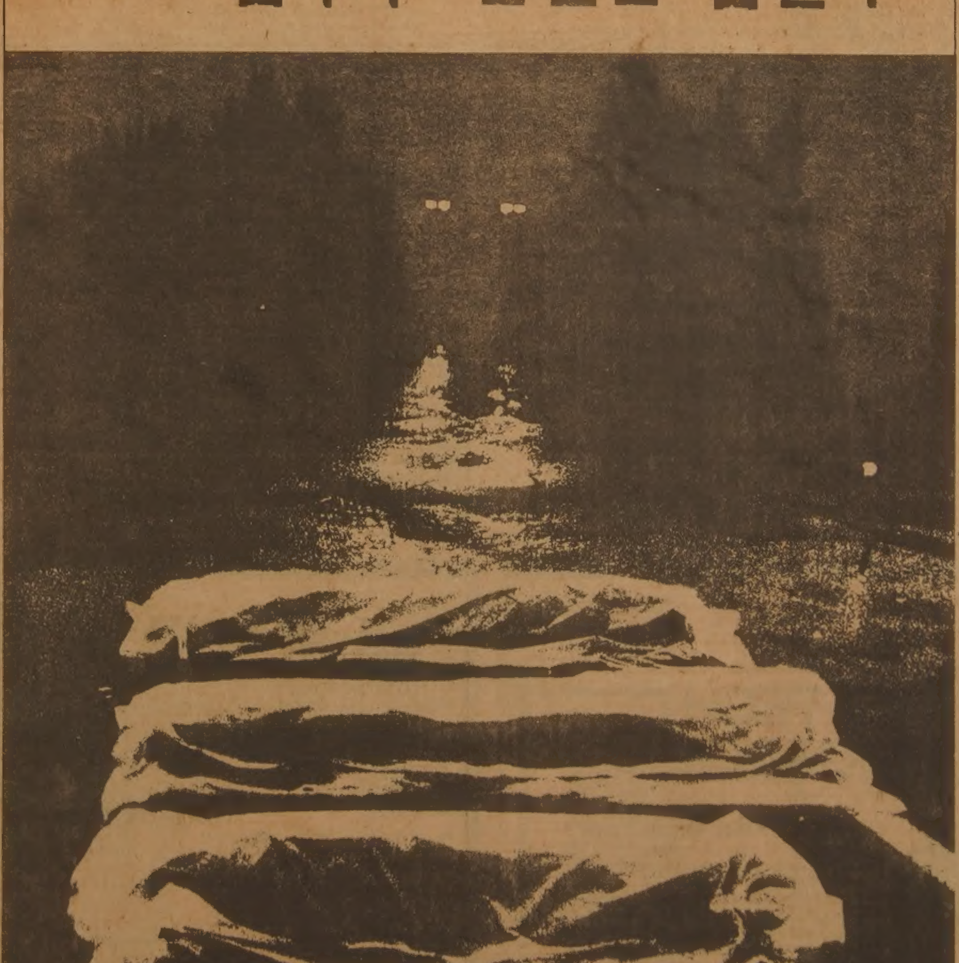
印, 正式신청키로
92年올림픽 誘致

【뉴델리AP=聯合】 인디라·간디 印度수상은 지난4일 막을내린 제9회 아시안게임이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자신은 전세계로부터 매일 수백통의 축전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印度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름에따라 오는 92년 올림픽대회를 유치키로 하고 내년3월 뉴델리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정식신청서를 낼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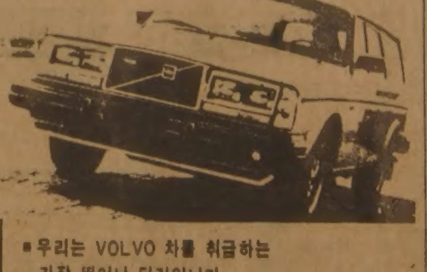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음주후 운전은 금물!



S.T.S Motors

이제는
VOLVO를
타실 때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배건등

판매 · LEASING · 써비스 · 부속파트 · 타이어 · 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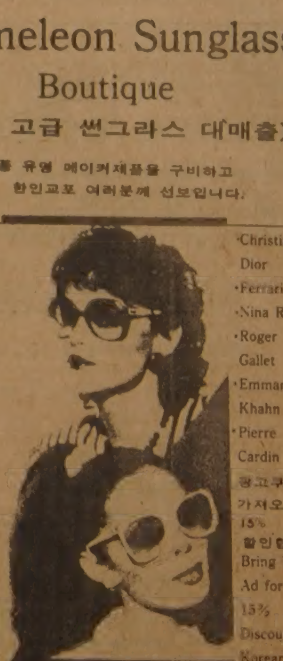
S. T. S. MOTORS
전화 : 751-7664 로렌스 · 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할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 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밀림튼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 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밭식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총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안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회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명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 요리사 구함.
경력 5년이상(요리사 자격증 요함)
전화 : 279-1039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Part Time 남자 헬퍼(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동쪽 끝.
전화: 282-5632

한식, 일식 여자요리사 구함, 3년 경력
658½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7-0432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Single needle, Double needle, Serging 머신.
◉좋은 보수와 좋은 이익.신청: Irving Posluns, Div. of Dylex,
647 Lakeshore Blvd, West, 3층.
◉월-금 8:00AM~5:00Pm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이즈링톤 × 알비온)
전화 : 743-2398

도넛츠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 소재
전화: 861-1521, 222-3877

개스 스테이션 풀타임 매니저 구함.
(자동차 유류판매 ONLY)
전화 : 1-852-7561

여자 가정교사 초빙
9, 11, 12학년 학생 가르쳐주실 여자분 선생님 원함.
전화: 694-1811, 691-8602

2층에 2 Bed-room달린 식당임(Chair 24개, Stool 9개)
지하실및 화장실 2개, 맡아서 운영하실분
전화 : 691-6768 Mr. 김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경험있는 풀타임 요리사 구함.
낮 또는 밤. 1315 Steeles Ave.(Dixie)
Mississauga, Ont, ◉전화: 457-1900

밤12시에서 아침7시까지 일할 경험있는
가게 캐쉬어 구함.(Mac's Milk Store)
전화: 421-1089, 250 Laird Dr.(Eglinton)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기 타

저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적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성업중인 스넥-바 및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5일 영업(짧은시간)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3-4491(오후5시 이후)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Take-Out Pizza 가게. Amherstburg, Ont.(윈저 20분거리)
주매상 $3,000·렌트 $350(모든것 포함) 월·일 문닫음. 아스킹 $40,000/$27,000 전화: 1-519-736-7515 Mr. 정(오후8시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Large Variety Store for Sale
4,000sq.ft. Excellent Location in ETOBICOKE
Yearly Turnover : over $800,000 + Other Icomes
from Lottery Sales, Video Machines.
Beautiful, Clean, Atractive Store.
Must be seen to be appreciated. Private sale.
Please phone(after 10:30p.m.) 636-4338(George)
*꼭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1년형 GMC밴트럭 17,000Km
다크 블루, 사정상 매매코자 함.
전화 : 365-0904 Mr.안

▲FAST FOOD 비지네스.
Yonge St.에 있고, Richmond Hill 근방.
아스킹 $200,000
▲빌딩딸린 비지네스땅 $550,000
746-4360 Joe Tanzoe
Hollywood Real Estate Ltd.

▲Florida,Custom Built 2Bed Rm집.
중앙식 에어콘과 히팅.
대지 80'×125'. 1983년 2월에 입수.
아스킹: $27,500 US달라.
Clearwater에서 35분 북쪽 on U.S. 19. Beach에서 7분거리.
전화: 665-9115
▲휴양지 수페셜라이징한 물개지 회사
Gross: 1 Million이상. 주인은 정년퇴직.
전화: 665-9115

수입 좋은 건물.(Bloor & Dovercourt)

디타치드. 방10개. 화장실3. 부엌2.
10%이자 아스킹: $79,900. ◉$10,000 다운페이.
전화: 298-7000 Silwin.
SILWIN REAL ESTATE LTD.

-"FOR LEASE"
-밀크스토아 장소. Brampton과 Oakville.
Oakdome Realty Ltd.-Realtor John W. Westerberg. 전화: 844-0363

Canada's Wonderland 근처의 Gift Shop 매매.
아스킹: $22,900+스탁. 전화: 746-4360 Joe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Winter 피아노. 새피아노 가격 $3,500 를 $2,300에 팔고자 함.
좋은 컨디션과 조율했음.
전화: 665-8233, 636-1430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2 Bed Rm. 아파트 렌트
Royal York & Queen's way 근방. 월: $370
전화 : 259-1724, 251-7031

Burlington에 있는 새쇼핑 쎈타안에 있는 Space 렌트합니다. 버라이어티 스토아나 음식점 또는 딴 비지네스에 적합.
전화 : 233-6276 or 1-639-9255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퍼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화수)
전화 : 868-0922

김충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